

황 선 엽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고전문학 작품을 통한  
국어사 교육방안

2009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김 사 랑

고전문학 작품을 통한  
국어사 교육방안

황 선 엽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김 사 랑

## 논문 개요

국어과 교육에서 국어사 교육은 결코 소홀이 할 수 없다. 이는 국어사 교육 내용이 국어과 교육 과정에 나타나 있는 ‘국어 사용 능력의 신장’, ‘국어 문화에 대한 이해’, ‘국어 사용에 대한 태도’ 등의 목표 실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현장 교육을 살펴보면, 국어사 관련 내용이 국어과 교육 과정에 명시된 것과는 달리 교육 과정상의 편제에서 소홀히 취급되어 왔고, 교과서의 내용 역시 국어사와 관련된 내용이 단편적인 지식 전달 위주이거나 ‘읽기’ 영역의 한 제재로 전개되어 왔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국어사 교육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를 시작으로 하여 보다 효과적인 국어사 교육의 교수-학습을 위해 고전 문학 작품과의 연계 교육이 효과적임을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먼저 I 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을 밝히고, 국어사 교육과 관련한 그동안의 연구를 연구 목적에 따라 국어사 교육의 의의나 필요성에 관한 연구, 국어사 교육의 내용에 관한 연구, 국어사 교육과 고전 문학 교육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국어사 교육의 효과적인 교수법에 대한 연구의 네 부류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II 장에서는 국어사 교육의 성격과 의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국어사란 한국어의 변천사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우리 민족의 역사성을 보여준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국어사에 대한 학습은 국어의 변천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학습적인 가치를 지니게 하고, 그 변천 발달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게 하며, 현대 국어 생활의 모습을 반성하고 이를 올바르게 보전할 수 있는 국어 의식을 기르게 하며, 우리 국어로 쓰인 문학 작품을 읽고 올바르게 이해하는 길잡이가 될 수 있다는 의의를 가진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국어사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III 장에서는 보다 매력적인 국어사 교육의 교수-학습 지도 방안을 위해 고전문학

작품과의 연계 교육의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교육과정의 선택과 결정을 직접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학습 자료인 고등학교 『국어(상·하)』 교과서와 18종의 『문학(상·하)』 교과서를 중심으로 국어사 내용을 교수-학습할 수 있는 고전문학 작품의 존재 여부에 대해 살펴보았다.

IV장에서는 III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국어사 영역을 교육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고전문학 작품을 선정하여 교수-학습 지도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서동요」를 이용하여 향찰표기법의 교수-학습 지도안을 마련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서동요」의 문학적 특성이나 내용을 전달하던 기존의 향가 수업과는 달리 「서동요」를 제재로 활용하여 향찰의 표기원리를 파악하고, 더불어 「서동요」를 읽고 이해하는 것에 수업의 목표를 두었다. 두 번째로 「청산별곡」을 이용하여 중세국어의 문법을 교수-학습할 수 있는 지도안을 제시하였다. 「청산별곡」은 교육과정이 바뀌어도 국어 교과서에 계속 수록되어 왔었다. 하지만 해석의 명확성이 보장되지 않았고, 해석에 대한 교수-학습의 활동이 없었기에 여기에서는 「청산별곡」에서 교수할 수 있는 중세국어의 처격조사와 의문형 어미, ㅎ중성체언, 의문 보조사, 객체높임의 선어말 어미에 대해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본고의 논의에서 도출할 수 있는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안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실제로 교수-학습 상황에서 실천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둘째, 본고에서 다루어진 교수-학습 방안은 평가의 단계에까지 이르지 못하였다.

# 목 차

## <논문 개요>

I. 서론	1
1. 연구 목적	1
2. 선행 연구의 검토	3
II. 국어사 교육의 성격 및 필요성	6
1. 국어사 교육의 성격	6
2. 국어사 교육의 의의	8
3. 국어사 교육의 필요성	10
III. 국어사 교육과 고전문학 교육의 상관성	12
1. 교과서에 실린 국어사 관련 고전문학 작품 및 지도 현황	12
1)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린 국어사 관련 고전문학 작품	13
2) 『문학』 교과서에 실린 국어사 관련 고전문학 작품	17
2. 국어사 교육과 고전문학 교육의 상관성의 확인	27
IV. 고전문학 작품을 통한 국어사 교육 방안	29
1.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유형	30
1) 설명식 수업기법	31
2) 발견식 수업기법	32
3) 여러 가지 수업기법	33
2. 고전문학 작품을 통한 국어사 교육의 교수-학습 지도안	37
1) 「서동요」를 이용한 향찰표기법의 교수-학습 지도안	37

2) 「청산별곡」을 이용한 중세국어 문법의 교수-학습 지도안 ·46

V. 결론 .....57

참고문헌

ABSTRACT

# I. 서론

## 1. 연구 목적

이 글은 1차에서 7차로 교육과정기가 바뀌어 오는 동안 국어과 교육과정 내에서 점점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국어사 교육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를 시작으로 하여 보다 효과적인 국어사 교육의 교수-학습을 위해 고전 문학 작품과의 연계 교육이 효과적임을 설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어사 교육의 개념을 김영옥(1998:85)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국어사가 민족 언어의 역사라면 ‘국어사 교육’은 그것 중에서 가치 있는 것들을 가르치는 교육활동과 교육 내용을 말한다”. 박형우(2004:143)는 “국어사는 우리말의 변천사라고 할 수 있는데 국어문화를 이루는 우리말의 역사이며, 그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 확립과도 깊이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하였다. 여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어사 교육이 국어교육의 중요한 한 부분임을 한국인이라면 부인할 수 없을 것이지만, 어찌된 일인지 1차 교육과정기에서 7차 교육과정기로 바뀌어 오는 동안 국어사 교육은 점점 그 위상을 잃고 결국 명목만 유지하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게 되었다.

국어사 교육에 대한 기존의 교육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이지은 2006), 제1~3차 교육과정기는 국민적 자질을 강조하는 관점에서 국어사 교육이 실행되어 왔기에, 국어사 교육뿐만 아니라 고전 교육 전반의 비중이 컸다. 그로 인해 교과서의 제재 선정에 있어서도 후대의 교육과정에 비해 고전 제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았다. 4~6차 교육과정기는 언어 체계의 이해를 강조하는 인문학적 관점에서 국어사 교육이 실행되었다. 국어사 교육은 학문 중심 교육과정의 등장과 함께 학습자의

언어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국어사 ‘지식’을 ‘이해’시키는데 치중하였다. 이 시기에는 국어과 교육에 대한 관점이 격변하는 가운데 국어사 교육은 이러한 변화에 동승하지 못함으로써 점차 고립되는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은 국어 문화를 강조하는 국어 생활사적 관점에서 국어사 교육이 실시되었다. 제6차 교육과정기에 비하여 양적으로 증가하였으나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간에 배워야 할 내용은 대동소이하며, 이 역시 학습자의 언어 능력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았기에 학습자로 하여금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위와 같이 국어사 교육이 그 설자리를 잃고 있는 모습을 보노라면 국어사 교육이 과연 학습자의 언어 능력 신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인가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올바르지 않은 시각이다. 국어사 교육은 우리의 국어과 교과영역에서 뚜렷한 당위성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수업의 현장에서 암기와 분석 위주의 수업 방식으로 인해 학습자들로 하여금 국어사 교육에 대한 흥미를 잃게 만들었다. 보다 효과적이고 흥미 있는 수업 현장을 위해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본고에서는 국어사 영역과 고전문학 영역과의 통합을 들고 있다.

이에 본고의 제2장에서는 먼저 국어사 교육의 성격과 의의 및 필요성에 대해 논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국어사 교육과 고전문학 교육의 상관성을 알아보려고 제7차 교육과정의 『국어』(상), (하) 교과서와 18종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고전문학 작품 중 국어사 영역을 연계해서 교수-학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작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2, 3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서동요」와 「청산별곡」을 예로 들어 국어사 영역을 교수-학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구안해 볼 것이다.

## 2. 선행 연구의 검토

국어사 교육과 관련한 그 동안의 연구는 연구 목적에 따라 크게 네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국어사 교육의 의의나 필요성을 주장한 연구로 김영옥(1998)의 논의를 들 수 있다. 김영옥(1998)은 국어 교육을 ‘전통적인 관점’, ‘기능적인 관점’, ‘문화적인 관점’의 세 가지 관점에서 분석하고 국어사 교육을 논함에 있어서 ‘국어 능력의 향상’이라는 목표적인 측면과 ‘국어의 정체성 확보’라는 방법적인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국어사 교육을 통해 우리말에 대하여 자부심을 느끼며, 한글 사랑의 길도 열 수 있으며, 합리적인 설명에 기초한 ‘국어사 교육’이 학습자들의 국어 능력 향상에 기여한다고 보았다

둘째는 국어사 교육의 내용에 관한 연구로 이도영(1999), 장윤희(2004), 김경훤(2005), 주세형(2005) 등이 있다. 먼저 이도영(1999)은 국어 지식 영역의 교육적 가치에 대한 탐색·논의의 부족으로 야기된 국어 지식의 영역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어사 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6차와 7차의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바람직한 국어사 교육을 위해서 국어사 교육 목표의 설정, 국어사 교육 내용의 구체화, 국어사 교수·학습 방법의 개발을 그 방법으로 들었다.

장윤희(2004)는 7차 국어과 교과서에 나타나는 국어사 내용 구성을 분석하여, 구체적으로 단원 구성 요소 간에 긴밀성이 부족하다는 점과 학습 목표와 학습 활동 사이에도 긴밀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교과서에 읽기 제재로 제시된 고전 문학과 각종 산문 자료들은 국어사 교육에 이용하지 못하는 사실을 비판하였다.

김경훤(2005)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현행 국어 과목 속에

서 국어사 관련 단원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일반계 고등학교 학습자들과 실업계 및 기타계 고등학교 학습자들의 국어 교과서가 서로 다른 체제로 구성되어야 함을 언급하였다. 또한 1학년에서 10학년까지의 과정을 ‘준비 단계’, ‘기초 단계’, ‘일반 단계’로 나누고 국어 교과서에서 다루어져야 할 국어사 관련내용을 다르게 구성하였다.

주세형(2005)는 국어사 교육의 위기는 국어사 교육 내용의 성격에 대한 천착이 부족한데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의 정체성을 밝히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어사 교육 내용의 설계에 있어서 학습자 중심으로 변해야 하며, 설계의 방향으로 학습자의 능동적 참여 유도, ‘통시’가 아닌 ‘범시적’인 시각, 국어 문화의 심층 구조의 이해를 들고 있다.

셋째는 국어사 교육과 고전 문학 교육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로 박성종(1997)과 장윤희(2002), 이지은(2007)이 있다. 박성종(1997)은 6차 교육 과정에 따른 중등학교의 국어과 교과에 수록된 고전문학 교재들을 대상으로 국어사 및 국어학에 관련된 사항들이 고전문학 교재들에서 어떻게 학습목표로 제시되며 또한 어떻게 학습활동으로 다루어지고 있는가를 논의하였다. 또한 선정된 고전 제재들의 수록 과정에서 생기는 표기법의 문제, 어법의 문제, 합당한 고전 제재 선정의 문제에 대해 언급하였다.

장윤희(2002)는 고전문학 작품의 문학적 해석 가운데 국어학적 관점에서 볼 때 수궁하기 어려운 해석들에 초점을 맞추어 고전문학 작품의 해석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목적 하에 먼저 「청산별곡」을 대상으로 국어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해석의 범위와 문학적 해석이 바탕으로 삼아야할 국어학적 의미를 제시하였다. 끝으로 국어사 지식 교육과 고전문학 교육의 관련성을 활용한 상호 보완적인 교육을 위해 국

어학과 고전문학, 고전문학 교육 간의 학문적 공동 연구를 요구하였다.

이지은(2007)은 ‘과거의 담화공동체가 가치 있게 여기던 이해·표현 방식이 드러나 있는 활자화된 텍스트를 읽고 쓸 수 있으며, 나아가 이것이 운용되는 맥락에 대해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한 ‘고전 리터러시’를 위해 문법 형태에 대한 교육을 논의하였다.

넷째는 국어사 교육의 효과적인 교수법에 대한 연구로 현본(2005), 하경철(2006) 등의 논의를 들을 수 있다. 현본(2005)는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대한 분석과 함께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후 신문을 활용한 교수법을 이용하여 고등학교 『국어』(하)의 1단원 ‘국어가 걸어온 길’에 대한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였다.

하경철(2006)은 국어사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잊고 점차 흥미를 잃어가는 학습자들에게 7차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부합하여 창의적이고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찾아 효과적인 수업 지도 방향을 모색하였다.

이제까지 국어사 교육에 관한 선행 연구들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이를 종합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어사 교육의 연구가 지나치게 그 내용 선정에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국어사의 성격이나 목표, 교수-학습 방법, 평가에 관한 연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연구의 방향이 지나치게 국어사 교육의 내용 쪽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국어사 교육 내용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학자들 간에 일치된 견해를 보이지 못하고 나름대로 그 비중을 달리하고 있어 학자들 간의 통합된 견해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

셋째, 국어사 교육과 고전문학 작품과의 연관성을 다룬 선행연구에서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고전문학교육과 국

어사 교육과의 연계 교육에 관한 자세한 교수-학습 방안은 본고의 IV장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다.

## II. 국어사 교육의 성격 및 필요성

### 1. 국어사 교육의 성격

국어사란 한국어의 변천사를 말한다. 우리말이 처음으로 등장한 이후, 시대의 흐름에 따라 현재까지의 그 변천된 모습을 기술한 역사를 말하는 것이다. 역사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의 하나는 변화이다. 따라서 역사 속에서 움직이는 언어는 끊임없이 변화의 과정 속에 있다. 이러한 언어의 역사성은 바로 그 언어 사용자의 역사성과 운명을 같이 한다. 따라서 국어의 역사성은 바로 우리 민족의 역사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국어는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변화된 모습을 간직하고 있지만 한국어의 발생 시기 및 사용 분포 지역 등의 정확한 고증 없이는 국어사를 이렇다하고 함부로 단언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현대의 국어라 할지라도 지역에 따라, 사회 계층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과거의 국어는 현대와는 많이 다른 모습을 갖고 있다. 또 국내가 아닌 국외에서 국어를 사용하는 우리 민족의 지역적 분포에 따라 각각 그 지역의 영향을 입고 있다. 이들이 사용하는 국어는 그 지역적 언어의 특성에 강한 영향을 받아 이미 많은 부분에서 그 모습이 한반도에서 사용하는 언어와는 다르게 나타난다. 이처럼 국어는 국내외 지역과 계층에 따라서도 다른 모습을 지니기 때문에 국어사에 대한 면밀한 연구 없이 국어사를 교육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어사 교육은 국어사 연구와는 다르다. 국어사 교육에서는 국어학자

들의 역저를 바탕으로 엄선된 내용을 학습자들에게 전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어사 연구를 통해 얻어진 학문적인 내용을 미성숙한 학습자들에게 적합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어떤 내용을 축약한 것이 그 교과와 본질적인 성격을 훼손하지 말아야 하며, 내용의 단순화 과정에서 그 교과와 교육적 가치를 상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즉, 학교에서 가르치는 국어사 내용은 이미 학교 교육의 목적을 위해 각색된 내용이어야 하지만, 이것이 실제 국어사 연구의 내용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아야 할 것이다.

한편 국어사 교육은 그 교수-학습 측면에서 연역적 방법과 귀납적 방법을 두루 사용할 수 있다. 김광해(1992) 이래로 국어지식 영역에서는 탐구 학습을 강조하여 왔다. 즉, 문제를 제기하고 가설을 설정한 후, 구체적인 학습 자료의 분석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고 이를 검증하는 귀납적 방법을 강조해 온 것이다.<sup>1)</sup> 그러나 국어사 교육에 있어서는 그 용어의 생소함과 용례의 낯설음 때문에 오히려 연역적 방법을 이용하여 교사가 미리 제시한 결론의 타당성을 학습자들이 검증하는 형식으로 교수-학습하는 것이 때로는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 다만 여기서 알아야 할 점은 연역적 방법과 귀납적 방법이 각각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달하고자 하는 사실의 종류에 따라 그 교수-학습의 방법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국어사 교육이란 국어과 교육에 있어서 한국어가 어떠한 변화의 원리에 의해 달라지고, 역사의 흐름에 따라, 지역과 사회 계층에 따라 어떻게 변모되며, 다른 언어와의 접촉에 의해 어떻게 변용되어 가는데 대한 내용들 중에서 교육적 의의가 있는 내용을 골라 가르치는 교육

---

1) 7차 교육과정에서도 국어지식 영역과 관련해서 탐구 학습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중학교 생활국어 교과서를 살펴보면, 국어 지식에 대한 설명이 있은 후 여러 활동을 제시하고 있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연역적 방식을 택하고 있는 셈이다.

적 활동과 내용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 2. 국어사 교육의 의의

국어사 교육이 지니고 있는 본질과 교육적 의의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국어사 교육의 기초적인 토대가 되는 국어사 자료들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한 이러한 자료들이 교육적으로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국어사 자료들이란 국어 사용의 역사를 증명해주는 일련의 자료들을 말한다. 즉 국어의 발달 과정을 증명해 줄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을 국어사 자료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글로 표기된 문헌 자료들뿐만 아니라 지명, 관직명, 인명 등을 차자표기한 비석문과 기타 문헌 자료들을 들 수 있으며, 각 지역에 살아 있는 방언들도 그 국어의 변천사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자료에 포함된다. 확실한 점은 국어사 자료들이란 과거의 자료들이지만 이들이 현대 국어의 영역 안에서 유의미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에도 살아 있는 자료들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어떠한 형태로든지 살아 있는 국어의 모습을 과거와 현재로 분류하여 살펴보고 교육하는 것은 언어적 표현을 통해 나타난 우리 민족의 의식 내지는 사상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국어사 교육의 토대가 되는 자료의 특성을 이해하고서 생각할 수 있는 국어사 학습의 의의는 크게 두 측면이 있다.

첫째, 국어사에 대한 학습은 우리 민족의 역사의 한 부분으로서 국어의 변천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학습적인 가치를 가진다. 우리 민족 역사 전체를 놓고 볼 때, 국어사는 우리 민족의 역사를 이루는 한 부분이다. 즉 우리 민족의 경제사나 정치사, 문화사, 사상사 등과

같은 하나의 특수한 역사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국어사를 학습하는데 있어 가장 의미 있는 행위는 우리 조상들의 언어 활동의 산물을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국어의 옛 모습을 추적하면서 당시 사람들의 국어 의식을 오늘의 학습 경험에 살려 둘 수 있는 것이다.

둘째, 국어사에 대한 학습은 실증적 효과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국어사와 관련된 내적·외적 증거들과 관련성을 가지고 그 변화 단계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국어사적 사실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고 그 의미를 종합하는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겪음으로써 학습자가 국어 사용자로서 올바른 탐구 능력과 국어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기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어사에 대한 학습의 실증적 효과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옛말과 현대 말의 차이를 인식하고, 그 변천 발달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2. 시대와 관련하여 그 당시 사용자들의 국어 의식을 엿볼 수 있으며, 현대 국어생활의 모습을 반성하고 이를 올바르게 보전할 수 있는 국어 의식을 기를 수 있다.
3. 우리 국어로 쓰인 문학 작품을 읽고 올바르게 이해하는 길잡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용비어천가」나 「송강가사」 등 국어로 된 주옥같은 옛 글을 현대어로 번역하여 읽히면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으나, 이는 그 내용을 절반 정도밖에 제대로 이해시키지 못하는 행위가 되고 만다. 왜냐하면 이미 그 내용이 번역된 것으로는 당시에 사용하던 국어의 모습을 파악하기도 어렵고, 이에 따라 그 속에 담겨 있는 당시 국어 사용자의 국어사용 의식을 찾아내기가 다소 힘들기 때문이다. 이는 국어로 쓰인 작품이나 외국어로 된 작품을 외국어로 또는 국어를 번역함에 있

어서 완전한 번역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그 언어에 대해 이미 친숙한 사람이라면 번역문을 읽는 것보다 원문을 택하여 그 이해의 정도를 높이고 있는 것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우리의 고전을 읽는 것은 그 글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그 당시 사람의 사상, 생활, 문화 등을 습득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 국어로 번역된 글을 가지고 학습하는 것보다는 원문을 가지고 살피는 것이 국어의 변천에 관한 학습과 아울러 고전 작품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 3. 국어사 교육의 필요성

그 동안 국어과의 교육과정은 대체로 지식 위주의 관점에서 점차 실용 중심의 관점으로 변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즉, 학문과 이론을 중시하던 기존의 관점에서 4차 교육과정 이후부터 국어과에서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라는 ‘언어 사용 기능의 신장’에 그 목표를 두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실제 교수-학습 과정에서도 체계적인 지식과 이론의 전달보다는 학습자의 실제적인 표현과 이해 활동에 강조점을 두게 되었다. 그 결과 표현·이해 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다소 부족한 국어지식 영역은 그 위상이 위축되었다. 더욱이 국어지식 영역 중에서도 국어사와 관련된 내용은 공시적인 국어의 사용과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설자리를 잃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국어사의 내용이 언어 사용 기능과는 전혀 무관한, 단순한 지식의 체계에 불과하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오히려 국어사 교육은 지식, 기능, 태도의 측면에서 그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목표<sup>2)</sup>를 통해서도 국어사 교육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다. 이는 ‘국어사용 능력’과 ‘국어 문화의 이해’, ‘국어에 대한 태도’로 요약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국어사용 능력’을 우리말의 효용성을 최대한 발휘하는 능력이라고 본다면 언어생활에서의 규범적인 문법 이외에, 우리말을 창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말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를 달성해주는 것이 바로 국어사 교육 내용과 관련 되는 것이다.

한편, ‘국어 문화의 이해’는 국어 교육의 목표가 ‘국어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국어의 발전과 민족의 언어문화 창조’에 있다는 국어 교육관에 기초하고 있다. 이는 우리말 속에 녹아 있는 민족 문화의 이해를 위해서는 우리말에 대한 언어학적 이해에 국어교육의 뿌리를 두어야 한다는 뜻이다. 결국 국어 지식에 관련된 언어학적 지식과 이해가 필요하고, 더불어 국어사적인 측면에서의 우리말 변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결국 ‘국어 문화의 이해’를 위해서도 국어사 교육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국어사 교육 내용은 ‘국어에 대한 태도’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국어에 대한 태도를 기를 수 있는 대표적인 내용으로 ‘훈민정음’을 꼽을 수 있다. 이는 교과서가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이 없이 교과서에 수록된 내용이지만 학습자에게 피상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훈민정음’을 바르게 교육하기 위해서는 세종대왕의 언어 인식과 이러한 인식이 음소 문자 체계와 어떤 관련이 있는

---

2) 언어 활동과 언어와 문학의 본질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언어 활동의 맥락과 목적과 대상과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국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며, 국어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국어의 발전과 민족의 언어 문화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 가. 언어 활동과 언어와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익혀, 이를 다양한 국어 사용 상황에서 활용하는 능력을 기른다.
- 나. 정확하고 효과적인 국어 사용의 원리와 작용 양상을 익혀, 다양한 유형의 국어 자료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사상과 정서를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른다.
- 다. 국어 세계에 흥미를 가지고 언어 현상을 계속적으로 탐구하여, 국어의 발전과 국어 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려는 태도를 기른다.

지, 그리고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가 어째서 과학적인 것인지를 설명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무자의 창제자와 창제 시기, 창제 목적을 알 수 있는 문자가 바로 훈민정음이라는 사실도 학습자들에게 전달해 주어야 한다. 학습자들이 이러한 내용을 정확히 인식하게 된다면 우리 민족의 문자 발달사에 있어 훈민정음은 우리 조상들이 외래 문자를 수용하고 극복해 오던 과정의 결정판이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으며, 한글의 과학성과 우수성에 대해서 논의하는 수준 자체가 달라질 것이다. 또한 학습자들은 우리의 말과 글에 대한 자부심도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느낄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이 곧 한글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져 국어에 대해 긍정적이고 올바른 태도를 기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국어사 교육은 학습자들이 가지고 있는 국어지식의 범위를 넓혀 ‘국어 사용 능력’의 신장에 이바지하고, 우리말의 모습을 통해 민족 문화의 이해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더 나아가 국어사 교육은 학습자들에게 우리말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더욱 크게 만들 수도 있다.

위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여기에서는 국어사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학습자의 동기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고전문학 작품과의 연계를 통한 국어사 교육의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다음 절에서는 국어사 지식의 교육과 고전문학 교육의 상관성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 Ⅲ. 국어사 교육과 고전문학 교육의 상관성

#### 1. 교과서에 실린 국어사 관련 고전문학 작품 및 지도 현황

교육과정은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선택된 교육내용과 학습활동

을 체계적으로 편성·조직한 계획으로, 국어교육계의 선택과 결정을 한 눈에 보여준다. 교과서는 이러한 선택과 결정을 직접적으로 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즉 교육과정에서 명시한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구현한 학습 자료라는 점에서 국어사 교육과 고전문학 교육의 상관성을 밝히는데 적절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국어사 교육과 고전문학 교육의 상관성을 살펴보기 위해 고등학교 『국어(상·하)』 교과서와 18 종의 『문학(상·하)』 교과서를 살펴본다. 이 중 국어사 내용을 간접적으로나마 교수-학습할 수 있는 고전 문학 작품<sup>3)</sup>이 읽기 제재로 수록된 단원에 초점을 두며, 더불어 고전문학 작품을 교수-학습함에 있어서 국어사 관련 내용을 학습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이를 통해 국어사 교육에 있어서 기존의 이론적이고 집중적인 교수-학습이 아닌, 고전문학 작품을 활용하여 보다 실제적이고 매력적인 교수-학습의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 1)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린 국어사 관련 고전문학 작품

현행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국어 교과는 국민 공통 기본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 심화 선택 과목으로 구분, 편제 되어 있다. ‘국어’는 국민 공통 기본 과목으로서 그 내용은 ‘듣기·말하기·읽기·쓰기·국어 지식·문학’으로 체계화되어 있으며, 각 영역을 심화시킨 과목이 ‘화법, 독서, 작문, 문법, 문학’이다. 국어 교과와 관련된 또 다른 과목은 일반 선택 과목 ‘국어생활’인데, 이는 ‘국어’과목의 심화 과목이 아니라, ‘국어’에서 배운 지식과 기능, 태도를 발전적으로 통합하여 국어 생활을 원만

3) 교과서에 수록된 고전문학 작품의 표기에 있어서 원전을 현대어로 번역하여 표기하였는지, 원전을 일부 수정하여 표기하였는지, 원전대로 표기하였는지 그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국어사 지식과 관련된다고 보았다.

하게 영위하는 실천적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과목이다(교육부, 2000:93).

이처럼 국어 교과가 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 공통 기본 과목을 제외한 일반 선택, 심화 선택 과목은 일선 학교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는 것이 보통이다. 국어과의 교재로 국정 교과서<sup>4)</sup>만을 인정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국어 교육에서 국어 교과서가 차지하는 중요성은 매우 크다. 때문에 이 장에서는 국어사 교육과 고전문학 교육의 상관성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고등학교 국어(상),(하)교과서를 살펴보기로 한다.

7차 교육과정의 국어사와 관련된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고전문학 작품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교과서명	대단원명	학습할 부분	주요 내용 및 활동	
고 등 국어 (상)	3. 다양한 표현과 이해	<보충학습> 이방원의 하여가 정몽주의 단심가	· 장면을 고려한 담화의 의미 해석 · 언어 외적 표현과 언어에 부수되는 표현 방식을 통한 의사소통 전략의 자기화	
	6. 노래의 아름다움	(1) 청산별곡	이해	· 문학의 아름다움 · 시의 아름다움 · ‘청산별곡’의 내용 및 화자의 정서
			활동	· ‘청산별곡’ 화자의 상황을 말하고 듣기 · ‘청산별곡’과 근대 민요의 공통점과 차이점 말하기
		(2) 어부사시사	이해	· 시의 아름다움을 실현하는 요소 · ‘어부사시사’의 형태적 특징 · ‘어부사시사’의 내용
			활동	· ‘어부사시사’의 평시조와의 차이점 파악하기 · 작품 속 화자의 삶에 대한 자신의 생각 말하기 · 타인의 발표 내용을 메모하며 듣기
	<학습 활동> 황진이의 시조		· ‘어부사시사’와 비교하여 형태적 특징 찾기 · 형태적 특징이 노래의 아름다움에 끼친 영향 생각하기	
	8. 언어와 세계	(1) 동국신속삼강행실도 (東國新續三綱)	이해	· 언어와 사고의 관계 · 언어와 사회의 관계 · 언어와 문화의 관계

4) 국가가 직접 저작하거나, 교육부의 위탁을 받은 기관이나 저작자들이 저작하는 교과서를 말한다. 편찬 계획, 연구 개발, 심의, 발행과 공급에 이르기까지 모두 국가에서 관장한다. 초등학교 교과서, 국어, 국사, 도덕 등의 교과용 도서, 시장 수요가 적어 경쟁성이 없는 도서가 그 예이다. 우리나라는 차츰 국정 도서를 줄여가는 추세이다.

		行實圖)	활동	· 언어와 사고, 사회, 문화의 상호 영향 관계
				· 그림 보고 내용 상상해보기 · 작품과 작가의 창작 동기의 관계 · 작품과 사회적·문화적 상황의 관계 · 풍속과 사회적·문화적 상황 · 사회적·문화적 상황의 이해와 작품 수용의 관련성
8. 언어와 세계	<심화학습> 요로 원야 화기 (要路院夜話記)			· 언어에 반영된 사회계층의 차이 이해 · 언어와 사회의 상호 작용에 대한 구체적 이해
고 등 국 어 (하)	1. 국어가 걸어온 길	(1)고대국어 -서동요	이해	· 한자 차용 표기의 배경 · 한자 차용 표기의 원리 · 향찰 표기의 원리 이해 및 적용하기
		(3) 근대국어 -동명일기	활동	· 고유어와 한자어에 대한 태도 형성하기
	4. 효과적인 표현	<심화학습> 사모곡(思母曲) 정인보의 자모사(慈母思)		· 작품에 대한 느낌과 생각 이야기하기 ·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시로 표현하기
5. 감동을 주는 언어	(1) 관동별곡		이해	· 관동별곡의 내용 · 문학이 추구하는 아름다움의 범주 · 문학이 추구하는 아름다움의 범주별 특성 · 관동별곡의 미적 특성
			활동	· 관동별곡의 어구 풀이하기 · 관동별곡의 구성을 파악하고 의미를 해석하기 · 관동별곡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글로 표현하기 · 관동별곡의 미적 표현방식 내면화하기

<표 1.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국어사 관련 고전문학 작품 목록>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서 국어사와 관련된 고전문학 작품은 총 11편으로 가사 1편, 고려가요 2편, 수필 3편, 시조 4편, 향가 1편이 수록되어 있다. 이 중 국어(하) 교과서의 대단원 ‘1. 국어가 걸어온 길’에 수록된 ‘서동요’와 ‘동명일기’를 제외한 나머지 작품은 그 해당 단원의 학습 목표가 국어사의 내용과 실제적으로 관련이 없고, 교과서 내에서 단지 읽기 또는 문학 교육을 위한 제재들로 활용되기 때문에 이들 내용은 간접

적으로 국어사 자료를 보여준다는 점에서만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대단원 '3. 다양한 표현과 이해'의 이방원의 「단심가」와 정몽주의 「하여가」는 고전 작품의 원래의 표기 형태와 어법을 도외시한 채 현대어로 풀이하여 수록함으로써 학습자로 하여금 언어 외적 표현과 언어에 부수되는 표현 방식을 점검하는 주요 활동에 국한하여 작품을 읽게 하고 있다. 대단원 '6. 노래의 아름다움'에 수록된 「청산별곡」은 교사용 지도서를 보면, '청산별곡에 대해 독자적 차원의 정확한 해석과 이해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특히 고어로 표기되어 있다는 점을 의식하여 지나치게 어석에만 주력하기보다는'<sup>5)</sup>이라고 한정하여 고전문학 교육에서 국어사 영역을 가르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이는 고전문학 교육에 국어사 영역에 대한 교육을 포함시켰을 경우 '훈고주석'에 치우친 교육으로 끝나 버릴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이들 제재를 교수-학습함에 있어서 국어사 관련 내용을 덧붙여 가르침으로써 학습자로 하여금 국어사 영역을 별도의 단원에서만 집중적으로 가르쳤을 때보다 더 효과적이고 매력적인 교수-학습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 또한 제기된다. 예를 들어 「청산별곡」의 3연<sup>6)</sup>에 쓰인 '본다'라는 표기에 대해 단순히 평서형 '본다'로 해석하지 않고, 중세국어에서 사용되는 2인칭 의문형 어미 '-나다'를 적용시켜 '보았느냐'로 해석하여야 함을 학습자들에게 인식시켜 줌으로써 고전문학 작품의 정확한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윤선도의 「어부사시사」 중 「춘사 4」<sup>7)</sup>를 통해서도 중세국어에서의 현대와는 다른 아래아(·)의 사용

5) 『국어』(하) 교사용 지도서, p. 280

6) 「청산별곡」 3연  
 가던 새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잉 무든 장글란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알리 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7) 우는 거시 벽구기가 프론 거시 버들습가

과 연결 표기법, 체언에 직접 ‘-가’ 연결되는 직접의문문 등을 학습할 수 있다. 이러한 교수-학습 활동을 하면 학습자는 매끄럽게 문장을 해석할 수 있고 나아가 글 속에 드러난 작가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 2) 18종 『문학』 교과서에 실린 국어사 관련 고전문학 작품

앞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국어 교과서의 각 영역을 심화시킨 과목으로는 ‘화법, 독서, 작문, 문법, 문학’이 있다. 이 중 김경훤(2005)에 의하면 학습자들에게는 어학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과목, 즉 ‘문법’과 같이 까다롭게 느껴지는 과목이 읽고 이해하는 과목으로 인식되는 ‘문학, 독서’보다 상대적으로 호응도가 낮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일반화된 오늘, 교육과정에서 학습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과목이 선택되는 것을 뒷받침한다. 때문에 일선 학교에서는 일반적으로 국어과의 선택 과목이 생기는 2, 3학년의 학교 지정 과목 편성에서 문법보다는 학습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문학이나 독서를 선택하여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국어과의 하위 영역을 심화시킨 과목 중 국어사 지식과 연관이 있는 ‘문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과 연관이 있다고 여기는 ‘문학’ 과목의 교과서에 초점을 두고 국어사 관련 고전문학 작품을 살펴보고자 한다.

7차 교육과정의 국어사와 관련된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 18 종<sup>8)</sup>의 고

---

이어라 이어라  
 漁어村촌 두어 집이 닛 속의 나락들락  
 至지芻국窓총 至지芻국窓총 於어思사臥와  
 말가흔 기픈 소희 온간 고기 띄노는다

8) 문학교과서 18종은 다음과 같다.

교학사(김대행 외), 교학사(구인환 외), 도서출판 디딤돌, 금성 출판사, 대한 교과서, 두산, 문원각, 민중서림, 블랙박스, 상문연구사, 중앙 진흥 연구소, 지학사(권영민),

전문학 작품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

지학사(박갑수 외), 천재교육, 청문각, 케이스, 태성, 형설 출판사  
각 출판사는 표로 제시 할 경우 앞 글자만 표기하였고, 교학사(김대행 외)는 교A로, 교학사(구인  
환 외)는 교B로, 지학사(권영민)은 지A로 지학사(박갑수 외)는 지B로 표기하였다.

	작품	교A	교B	디	금	대	두	문	민	블	상	중	지A	지B	천	청	케	태	형	합
1	규원가	●		●		●			●				●	●		●	●			8
2	농가월령가		●	●			●					●	●		●					6
3	누항사		●									●								2
4	면앙정가	●	●			●			●			●					●		●	7
5	사미인곡			●	●		●	●	●	●		●			●		●		●	10
6	상사별곡												●							1
7	상춘곡	●			●					●	●								●	5
8	선상탄															●	●			2
9	속미인곡		●	●		●		●	●			●		●	●	●	●	●		11
10	우부가													●						1
11	용부가													●				●		2
12	일동장유가								●			●			●					3
13	한림별곡			●	●	●	●	●	●			●		●	●	●	●		●	12
14	가시리	●	●		●	●		●	●	●	●	●	●	●	●	●	●	●	●	16
15	동동	●	●		●							●	●				●	●		7
16	만전춘별사							●	●									●		3
17	사모곡				●															1
18	상저가							●												1
19	서경별곡	●		●	●	●	●	●				●		●	●		●		●	11
20	쌍화점	●				●												●		3
21	정과정곡			●			●					●								3
22	정석가		●						●					●	●		●			5
23	청산별곡		●		●		●	●				●						●	●	7
24	심청전												●							1

	작품	교A	교B	디	금	대	두	문	민	블	상	중	지A	지B	천	청	케	태	형	합
25	춘향가								●											1
26	흥부전		●																	1
27	흥길동전				●										●					2
28	가노라 삼각산아	●																	●	2
29	가마귀 검다 학교	●																		1
30	가마귀 눈비 마자	●																		1
31	가마귀 싸호는 골에	●																		1
32	간 밤의 부던 바람									●										1
33	강산 조흔 경을															●				1
34	강호사시사	●	●	●			●	●							●		●			7
35	기를 여라은이나										●									1
36	개야미 불개야미													●						1
37	견회요						●													1
38	고산구곡가																●			1
39	구름이 무심톤 말이														●					1
40	국화야 너는 어이									●	●								●	3
41	귀쏘리 저 귀쏘리						●						●		●	●				4
42	나모도 바히돌도	●			●				●			●	●						●	6
43	내 마음 버혀내여					●														1
44	내 언제 무신혀여								●					●			●			3
45	내게는 원수   가												●							1
46	노래 삼긴 사름			●						●		●					●			4
47	논 밭 갈아 기음														●					1
48	높으나 높은 냇에											●								1
49	눈 마주 휘어진 턱											●								1

	작품	교A	교B	디	금	대	두	문	민	블	상	중	지A	지B	천	청	케	태	형	합
50	누라져 가마귀를	●								●										2
51	남 글인 상사몽이														●					1
52	남이 오마 하거늘									●			●							2
53	당시에 네던 길을								●											1
54	대천 바다 한가운데	●																		1
55	대초 볼 불근 골에											●								1
56	탁들에 동난지이사오									●		●			●					3
57	도산 십이곡			●																1
58	동기로 세 몸 되어														●					1
59	동지스달 기나긴 밤		●	●	●		●	●	●	●	●				●	●				10
60	두류산 양단수를 네									●	●	●		●						4
61	두터비 폭리를 물고				●	●	●			●	●	●				●	●		●	9
62	막음이 어린 후이니								●	●			●				●			4
63	만흥											●		●			●			3
64	말 업슨 청산이요				●								●	●						3
65	릭암이 뵈다 울고						●	●												2
66	매화사		●				●												●	3
67	윗버들 갈히 것거	●		●								●	●				●		●	6
68	부름도 쉬여 넘논										●									1
69	반중 조흥 감이			●																1
70	볼가 버슨 아해				●										●					2
71	방 안에 헛는 축불		●						●		●				●					4
72	백설이 주자진 골에			●	●															2
73	봄이 왔다 후되			●																1
74	삭풍은 나모 굿퉁											●							●	2

	작품	교A	교B	디	금	대	두	문	민	블	상	중	지A	지B	천	청	케	태	형	합
75	청산은 내 뜻이요						●					●								2
76	산은 냇산이로되						●													1
77	산전에 유대하고											●								1
78	산촌에 눈이 오니								●				●							2
79	삼동에 뵈듯 넓고														●					1
80	서검을 못 일우고												●						●	2
81	선인교 나린 물이						●					●			●					3
82	수양산 바라보며	●													●					2
83	식어마님 며느라기	●							●	●					●	●				5
84	십년을 경영하여				●	●			●	●	●	●	●				●		●	9
85	어부가											●					●		●	3
86	어부사시사	●				●		●	●		●	●				●			●	8
87	어저 내일이야			●					●	●						●	●			5
88	오날이 으슴 날고		●																	1
89	오늘도 다 새거다		●																	1
90	오륜가		●			●											●			3
91	오백년 도읍지를				●					●			●			●				4
92	오우가								●			●							●	3
93	우레갓치 소르나논																		●	1
94	이 몸이 주거 가서						●		●		●	●		●				●	●	7
95	이 몸이 주거 주거	●		●	●								●							4
96	이런들 엇더하며	●					●													2
97	이화에 월백하고	●		●			●		●						●					6
98	이화우 흠썩릴 제								●			●					●			3
99	잔 들고 혼자 안자			●						●										2

	작품	교A	교B	디	금	대	두	문	민	블	상	중	지A	지B	천	청	케	태	형	합	
100	장진주사											●									
101	재 너머 성권룡의			●					●	●					●			●		5	
102	전원에 나른 흥을			●						●	●									3	
103	지당에 비 뿌리고																●			1	
104	짚 방석 내지 마라							●												1	
105	창 내고자 창을	●	●	●					●							●				5	
106	천만 리 머나먼 길							●		●										●	3
107	청량산 육륙봉을													●							1
108	청산도 절로 절로			●								●								●	3
109	청산리 벽계수야						●						●								2
110	청산은 엇대하야						●			●		●					●	●	●		6
111	청초 우거진 골에								●							●					2
112	청하에 밥을 싸고															●					1
113	초암아 적료훈덕		●						●												2
114	추강에 밤이 드니				●				●						●						3
115	춘산에 눈녹인 바름			●						●											2
116	충신은 만조중이요			●																	1
117	풍상이 섰거친 나레															●					1
118	하하 허허 흥들										●										1
119	훈 손에 막덕 잡고				●							●									2
120	한거십팔곡																		●		1
121	한산성 둘 불근방의				●											●					2
122	함슴아 세한슴아	●													●						2
123	훈민가			●	●		●	●					●								5
124	흥망이 유수하니			●		●						●			●		●				5

	작품	교A	교B	디	금	대	두	문	민	블	상	중	지A	지B	천	청	케	태	형	합
125	섬은 든눈 대로		●									●								2
126	용비어천가		●	●	●		●	●	●	●			●	●		●	●	●	●	13
127	계축일기								●											1
128	동명일기									●				●						2
129	명은 공주의 언간			●																1
130	산성일기									●	●						●			3
131	선조 대왕의 언간			●													●			2
132	요로원야화기	●																		1
133	작자 마상의 언간			●																1
134	한중록				●										●					2
135	해경궁 흥씨의 언간																●			1
136	유산가																		●	1
137	강남봉구이구년			●																1
138	강촌				●								●	●						3
139	귀안				●		●													2
140	등악양루			●																1
141	무제(가라미 파라니)																●			1
142	월야역사제													●						1
143	춘망				●		●			●										3
144	도솔가					●			●											2
145	모죽지랑가	●																		1
146	서동요		●		●				●										●	4
147	안민가										●				●	●	●		●	5
148	원왕생가						●		●					●	●					4
149	정읍사	●		●			●	●	●						●		●	●	●	9

	작품	교A	교B	디	금	대	두	문	민	블	상	중	지A	지B	천	청	케	태	형	합
150	제망매가	●		●	●	●	●	●	●	●	●		●	●	●	●		●	●	15
151	찬기파랑가	●						●		●			●			●	●	●	●	8
152	처용가				●	●							●			●		●		5
153	현화가						●													1
합계		29	25	35	33	17	28	20	38	26	18	45	25	23	34	23	34	18	31	

<표 2.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국어사 관련 고전문학 작품 목록>

앞에서 살핀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위 표에 기록한 작품은 문학 교과서 내에서 본문으로 수록된 것뿐만 아니라, 학습활동이나 새로운 단원을 시작하기에 앞서 미리 공부해 보는 과정에서 혹은 단원을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읽기 제재로 쓰인 것 까지 포함하였다.

18 중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고전문학 작품 중 국어사 영역과 관련된 작품 수는 총 153편이며, 이 중 시조가 98편으로 가장 많았고, 가사가 12편, 고려가요가 10편, 향가가 10편, 수필 9편<sup>9)</sup>, 두보의 시를 언해한 것이 7편, 판소리 사설 및 고전 소설 4편, 경기체가가 1편, 악장 1편, 잡가 1편이 있었다.

위 표를 통해 학습자들이 한 종류의 문학 교과서를 통해 평균적으로 국어사와 관련시킬 수 있는 24.7편의 고전문학 작품과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문학 교과서는 수록된 작품이 본문인지 혹은 학습활동, 설명문 등의 읽기 제재인지에 상관없이 해당 작품의 원전을 그대로 싣고 있었다. 이 중 본문으로 수록된 작품에 있어서는 훈고주석식의 어구 풀이만 있었고, 작품에 드러난 국어사 영역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그러나 읽기제재로 활용된 작품들에 있어서는 원전만 덩그러니 노출시켜 작품의 해독은 오로지 교사의 재량에 맡기고 있었다. 이는 제7차 고등학교 문학 과목의 내용 체계<sup>10)</sup>에 어긋난다. 제7차 고등

9) 수록된 작품 중 언간(명은 공주의 언간, 선조 대왕의 언간, 작자미상의 언간, 혜경궁 홍씨의 언간)은 수필의 범주에 포함하여 작성하였다.

영역	내용	
(1) 문학의 본질	(가) 문학의 특성 (다) 문학의 갈래	(나) 문학의 기능 (라) 문학의 가치
(2) 문학의 수용과 창작	(가) 문학의 수용과 창작 원리 (다) 문학의 창조적 재구성	(나) 문학의 수용 (라) 문학의 창작
(3) 문학과 문화	(가) 문학 문화의 특성 (다) 세계 문학의 양상과 흐름	(나) 한국 문학의 특질과 흐름 (라) 문학의 인접 영역
(4) 문학의 가치화와 태도	(가) 문학의 가치 인식 (다) 문학에 대한 태도	(나) 문학 활동에의 능동적 참여

학교 문학 과목의 내용 체계 중‘(나) 한국 문학의 특질과 흐름’에서는 ‘한국 문학의 대표적인 작품을 읽고, 한국 문학사의 전통과 지향성을 이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한국 문학의 전통과 지향성을 이해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대표적인 문학 작품을 올바르게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고대 국어, 중세 국어, 근대 국어로 쓰인 작품을 올바르게 해독하는 과정을 교과서는 제공하고 있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통해 다시 생각해 보면, 교과서에 수록된 많은 문학 작품들을 교수-학습함에 있어서 국어사 영역과의 연계 교육의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고전문학 자료의 언어는 음운, 어휘, 문법이 현대 국어와 다르기 때문에 문학작품의 올바른 감상을 위해서는 그 작품의 언어를 정확히 해독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어사에 관한 지식은 우리 고전문학 작품의 이해와 감상을 위한 기본 조건인 것이다. 한편으로, 국어사에 관한 지식은 별개 영역으로 교육되었을 때 학습자들은 부담감과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데 고전문학과 연계되어 교육함으로써 학습자들의 동기와 흥미를 유발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국어사에 관한 지식 교육과 고전문학 교육은 높은 상관성을 갖고, 이들의 교육 목표가 많은 부분 맞닿아 공유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2. 국어사 교육과 고전문학 교육의 상관성의 확인

앞서 살핀 두 표를 통해 고전문학 작품과 국어사 교육의 상관성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고전문학 작품과 국어사 교육은 독립적인 별개의 것이 아니라 뗄 수 없는 관계이며 언어와 문학 영역의 연계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국어사 교육과 고전문학 교육은 각각의 영

---

10) 제7차 고등 학교 ‘문학’ 과목의 내용 체계

역에 있어서 서로 도움을 주는 정측매 역할을 한다고 판단된다.

먼저 고전문학 교육의 입장에서 국어사 교육의 필요성을 살펴보자.

고전 문학 작품은 발생 당대의 언어를 재료로 하는 문예물이다. 이는 곧 고전 문학 작품은 당대의 표기와 음운, 어법 등이 응결된 언어 결정체요, 다른 한편으로는 역사적 실체라는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고전 문학 작품을 언어구조물로서의 관점과 국어사적 견지에서 고찰함은 물론, 문학 장르 및 문예비평과 국문학사적 관점 등 여러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분석하여 다루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고전문학 작품을 감상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학습자에게 요구되는 능력이 바로 텍스트를 올바르게 해독하는 일이다. 고전문학 작품의 언어는 음운, 어휘, 문법이 현대 국어와 다르기 때문에 텍스트의 올바른 해독은 더욱 중요하다. 즉, 작가가 의도한 바대로 작품의 의미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가 구사한 당대의 언어 표현 그 자체의 의미를 학습자 역시 알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고전 텍스트를 해독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익숙하지 않은 과거의 언어를 직면하게 되며, 이 때 학습자가 익숙하지 않은 과거의 언어는 텍스트를 해독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물리적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이는 나아가 고전 텍스트 읽기에 대한 심리적 장애를 초래하기도 한다.<sup>11)</sup> 따라서 학습자가 고전 텍스트를 읽고 의미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텍스트에 대한 물리적 장애 요인이 제거되어야 하는데, 이 지점에서 국어사 영역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이고도 중요한 교육 항목이 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국어사 교육의 입장에서 고전문학 작품의 필요성 또한 인정된다. 즉, 고전문학 교육을 통해 국어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일은 고

---

11) 이지은(2006)에서는 텍스트를 구성하고 있는 언어 요인은 물리적 실체에 해당하며, 물리적 장애 요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심리적 장애로 발전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전문학 교육의 측면에서만 의미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다.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는 국어사 교육 자체를 위해서도 이는 유용한 방법인 것이다. 현행 교육과정이나 7차 교육과정에서는 국어사 영역을 별도의 단원으로 배정하고 있다. 이렇게 국어사와 관련된 영역을 별도의 단원에서만 집중적으로 가르쳤을 경우에는 자칫하면 무조건적인 암기와 분석만 요구하여 학습자들의 학습에 대한 흥미를 반감시킬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고전문학 작품이 나올 때마다 그 작품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특징적인 국어사에 관한 지식을 그때 그때 가르친다면 오히려 학습자들의 국어사적 지식을 더 공고히 해줄 수 있고, 국어사적 지식이 실현되어 있는 다양한 맥락의 제공을 통해 언어의 역사성을 더욱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고전문학을 다루는 작품에서 작품 감상이외에 문자의 고전적인 모습을 살펴보고, 현대 국어와 다른 차이를 알아본다든지, 현대 국어에서는 어떻게 변했는지, 그렇게 된 데에는 어떤 사회·문화적 배경이 적용했는지 등을 살펴본다면 보다 풍부한 국어사 영역의 교수-학습이 될 것이다.

이처럼 국어사 교육과 고전문학 교육은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의 교육은 별개로 진행되기보다는 고전문학 작품을 통해 국어사에 대한 지식을 교육하고, 국어사에 대한 지식의 교육을 통해서 고전 작품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는 방향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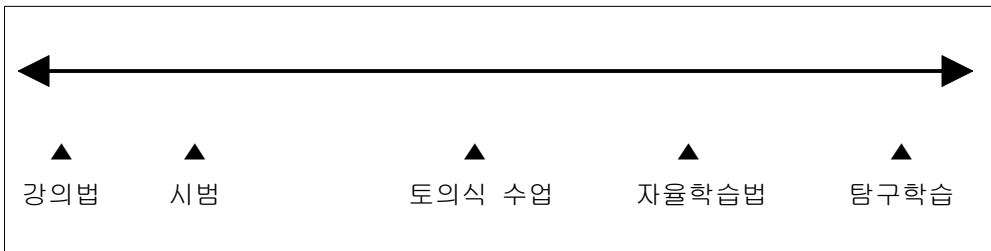
본 논문은 고전문학 교육보다는 국어사 교육에 그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다음 장에서는 위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고전문학 작품을 선정하여 국어사 영역 교육의 교수-학습 지도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 IV. 고전문학 작품을 통한 국어사 교육 방안

## 1.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유형

주어진 수업 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업 기법이 요구된다. 수업기법은 가르칠 수업 목표, 수업 상황, 수업 자료의 특성, 학습자의 수준 등에 따라서 다양해질 수 있다. 그러나 대개의 수업은 수업의 목표를 학습자들이 어떠한 절차에 따라서 학습하도록 하는가에 따라서 설명식 수업기법과 발견식 수업기법으로 나뉜다.

설명식 수업 기법은 교사가 사전에 잘 짜인 수업 내용을 학습자들에게 전달하고, 학습자들은 그 내용을 듣고서 수용하는 방법이며, 발견식 수업 기법은 학습자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자주적으로 수업 내용을 이해하거나 수업 목표에 도달하게 하는 기법이다.



<표. 3. 설명식 및 발견식 수업의 범위>

어떠한 수업이 설명식 수업이고, 어떤 것이 발견식 수업인가를 판단할 경우에 여러 가지 기준이 있다. ‘수업 중 교사의 역할이 어떠한 것이냐?’, ‘수업 중 학습자의 역할이 어떠한 것이냐?’, ‘누가 수업을 주도해 나가느냐?’ 등의 기준을 통해 어느 쪽에 가까운 지를 판단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기본적인 수업의 기법에 관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설명식 수업 기법

설명식 수업기법은 대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 ① 교사는 학습자들이 학습하게 될 지식(내용)을 사전에 잘 정리한다.
- ② 학습자들은 교사의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수용하게 된다.
- ③ 학습자들은 각자가 지니고 있는 지적 능력을 동원하여 새로이 수용된 지식을 체계화 한다.
- ④ 학습자들은 체계화된 지식을 자신의 생활에 적용하거나 기억한다.

이처럼 설명식 수업은 교사의 지식을 학습자들이 수용하는 형식이다. 이러한 경우의 가정(假定)은 교사들은 학습자들이 학습하게 될 지식을 잘 알고 있고 그 지식을 학습자들이 체계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학습자들은 수업자의 언어에 의해서 전달되는 지식이나 요령을 들어서 수용할 수 있고 그것을 체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수업의 기법은 경비를 적게 들이고 어느 정도의 효과를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 사람의 수업자가 별다른 준비물 없이, 그리고 장소나 시간에 별다른 구애를 받지 않고 수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업 기법을 사용할 때 생기는 문제점도 많다. 학급에 있는 모든 학습자들이 교사의 설명 내용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이 기법이 제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대개 경우에는 교사의 설명을 듣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학습자들이 학급에 많이 있다. 분명히 이들에게는 이 기법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학습자들은 언제나 수용자의 역할에 놓이기 때문에 수업 상황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 않게 된다. 또 교사의 설명을 듣고 이해한다 할지라도 그 이해된 수준이 학습자가 실제의 문제를 풀거나 적용해야 할 경우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2) 발견식 수업 기법

이 수업방법은 탐구수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수업 기법의 특성을 갖는 예로는 시뮬레이션 수업, 토의식 수업, 역할극 등을 들 수가 있다. 이러한 수업 기법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행해진다.

- ① 교사와 학습자들은 다 같이 학습문제의 선정과 그 해결 방법의 선택에 참여한다.
- ② 교사와 학습자는 공동으로 학습문제의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 ③ 학습자들은 교사의 안내에 따라서 선택된 학습문제의 해답을 찾고, 그 해답을 중심으로 일반화한다.
- ④ 학습자들은 학습한 것을 직접적으로 상황에 적용한다.

발견식 수업 기법을 적용할 경우 교사의 역할을 교수-학습의 과정에서 학습자들과 함께 공동 참여자의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 교사들은 학습자들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갖고 학습자들이 당면한 문제를 풀어 나가는 데 지도, 조언을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때 학습자의 역할은 다양하다. 문제의 탐색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의 계획자, 자료 수집자,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해석을 하며 일반화를 하는 자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 수업 기법의 장점으로선 우선 학습자들은 대개 자신이 계획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추진해 보려는 강한 욕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수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또 학습자들이 자신에게 의미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학습을 하기 때문에 그 학습이 성공적으로 되었을 경우 보다 높은 수준의 내적 강화를 받게 된다. 반면에 발견식 기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 기법은 주로 활동 중심이기 때문에 수업 전에 자세한 수업 계획을 수립하기가 어렵고, 학습자들은 모두가 이러한 활동을 그대로 수행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여러 단계의 학습활동을 거쳤지만 독자적인 힘으로 일반화를 해내고, 그 일반화를 이용하여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 기법은 수업의 시간량을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교과목의 다른 영역을 골고루 다룰 수 없다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기법은 학습자들의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능력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 점이 장점이 되는 동시에, 교사들은 학습자의 학습 결과를 평가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단점이 된다.

### 3) 여러 가지 수업 기법

주어진 수업 목표를 성취시키기 위해서 제공될 수 있는 수업의 기법에는 다양한 것이 있을 수 있다. 때로는 교사의 별다른 지도를 받지 않고 학습자들이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형태도 있을 수 있으며, 또 수업이 시작되는 처음부터 끝까지 교사가 설명하는 형식의 수업 형태도 생각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수업의 방법 중에서 각개의 특성을 고찰하면 교과와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수업 목표에 알맞은 수업의 기법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 (1) 강의법

강의법은 수업내용을 학습자들에게 전달 혹은 이해시킬 목적으로 학습자나 청중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방법을 말한다. 강의법은 수업의 도입이나 초기단계, 학교의 수업이나 현장 훈련, 시간은 부족한데 가르쳐야 할 내용이 많은 경우, 교사의 수는 적고 학습자나 청중은 많아 한 교사가 많은 학습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사용한다.

그러나 교사가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참여가 제약되고 학습자들의 학습 진척 상황이나 성취 정도를 점검하기가 어렵다. 또, 학습자들의 주의집중도나 흥미의 수준도 낮게 나타난다.

강의법을 사용할 때에는 강의 전에 강의 내용의 개요나 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하며, 학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강의 내용이나 자료를 몇 개의 토픽으로 재조직해야 한다. 또, 추상적인 개념이나 복잡한 관계를 설명할 경우에는 시각적인 학습 자료를 이용하며 학습자들의 생각을 명료화시키기 위해 수업이 끝날 무렵에 질의·응답의 시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2) 토의법

토의법은 어떤 주제·이유·논쟁점 등을 학습자와 교사가 다 같이 언어로 상호작용 하는 방법을 말한다. 토의법은 수업의 중간이나 마지막 단계에 이용되며, 학교 수업이나 직업 훈련 특정 분야에 사용되며, 알고 있는 지식을 심화시키거나 어떤 자료에 대해 보다 명료한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 또, 학습자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문제

를 수정하고 해결하거나 무슨 결정을 내리기를 요구하는 학습의 경우, 학습자들에게 다양한 접근 방법으로 해석하기를 요구하는 경우, 팀워크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한다. 토의법은 시간의 소비량이 많고, 학급 인원수의 크기에 제약을 받고, 학습자들이 다 같이 주어진 주제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배경을 가져야 한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토의법은 토의될 주제를 충분히 파악해야 하며, 구체적인 문제나 이유를 말로 충분히 설명해 주거나, 토의를 위해 관련된 자료를 안내해 주어야 한다. 또, 학습자가 토의 결과에 대해 명료화 내지는 요약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며, 토의에서 교사는 안내만 해야지 강의나 구체적인 설명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학습부진아 집단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 (3) 시범식 수업

시범식 수업은 학습자가 설명을 듣거나 시범을 보고 알게 된 지식이거나 기능을 교사의 지휘나 감독 아래 직접적으로 연습 내지는 적용해 보게 하는 방법이다. 수업의 중간이나 마지막 단계, 학교 수업이나 직업 훈련 특정 분야 등에서 학습자들이 학습한 것을 실제의 사태에 적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 직업이나 특수 기능 훈련 시 실제와 유사한 사태에서 연습해야 할 경우, 언어학습·문제해결학습·원리학습 등에 사용된다. 시범식 수업은 모든 학습자들이 다 연습을 통해 주어진 목표에 도달해야 하므로 시간의 소비량이 지극히 많고, 특수시설이나 설비가 요구되며, 이 시설의 유지비 역시 많이 든다. 또, 다른 방법보다 교사 대 학습자의 수의 비율이 낮아져 많은 교사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단순한 기능에서부터 보다 복잡한 기능의

순서로 학습할 수 있도록 치밀한 수업 계열을 수립해야 하며 충분한 시설과 자료를 준비하여 학습자와 시설의 안전대책을 사전에 면밀히 계획하여야 한다.

#### (4) 자율학습법

자율학습법은 학습자가 교사의 구체적인 안내나 지도 없이 학습자 스스로 읽고, 탐구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수업의 최종 단계에서 주로 이용하며, 모든 형태의 교과목에 적용이 가능하며 학습자가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이 있는 경우 주로 이용한다. 또 학습자 개개인이 갖고 있는 독특한 흥미를 추구하는 경우에도 사용한다. 그러므로 학습자들이 달성해야 할 목표치를 자신이 결정할 때 학습은 보다 효과적이지만 이 경우에는 외부적으로 목표치가 주어지기 때문에 곤란한 점이 있다. 자율학습법의 경우 학습자들이 읽어야 할 책 목록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하며, 학습자들이 달성해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한다. 또, 학습자들의 학습 진도를 수시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전에 계획해야 한다.

#### (5) 협동학습법

협동학습법은 주어진 수업 목표를 학습자들 간에 상호 협력을 통해 달성하는 방법이다. 협동학습법은 사회적 의사소통 기술의 교육이 필요한 경우, 학습 능력이 다른 학습자들 간에 상호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학습부진아의 성공적인 학습경험 제공이 필요한 경우, 다른 학습자의 학습방법의 관찰과 배울 기회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는 경우, 협동심을

키워줄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이용한다. 하지만 수업의 질을 통제하기가 어렵고, 학습과제의 수행보다 사회적 활동에 치중할 우려가 있다. 또 개인의 능력차에 따라 몇몇 개인에 의한 학습활동이 주도될 가능성이 있으며 아무런 노력 없이 무임승차의 효과를 누리는 사람이 나타날 수가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 간의 충분한 의사소통 기술의 습득이 필요하고 학습활동 시 구성원들 모두 똑같은 공헌을 할 수 있도록 협력활동을 구조화해야 하며 무임승차나 몇몇 학습자에 의해 학습활동이 주도되지 않도록 교사의 조정활동이 필요하다.

## 2. 고전문학 작품을 통한 국어사 교육의 교수-학습 지도안

### 1) 「서동요」를 이용한 향찰표기법의 교수-학습 지도안

고전문학 작품 「서동요」를 이용한 향찰표기법의 수업은 고대 국어 시기에 우리말 표기를 위한 수단이었던 향찰에 대해 이해하고, 실제 작품인 「서동요」를 제재로 활용하여 향찰의 표기 원리를 파악하며, 더불어 「서동요」를 읽고 이해하는 것을 학습목표로 한다. 따라서 대표성을 띤 작품 혹은 문학적성을 가장 뛰어난 작품을 선택하여 장르의 특성과 작품의 아름다운 가치를 학습자들에게 전달하던 기존의 향가 수업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밝히는 바이다.

「서동요」를 이용한 향찰표기법의 수업 지도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수-학습 내용	향찰표기법	차시	1/1
학습	1. 훈민정음 창제 이전의 우리말 표기수단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목표						
2. 「서동요」를 읽고, 현대 국어로 바꾸어 읽을 수 있다.						
과정	중심내용	교수-학습활동		학습 형태	자료 매체	시간
		교사	학습자			
도입	· 인사	· 인사	· 인사	문답법	PPT 또는 인터넷	5분
	· 동기유발	· ‘빛고을’과 ‘광주(光州)’ 단어의 연관성 찾아 자유롭게 의견을 이야기 하게 한다.	· ‘빛고을’과 ‘광주’의 연관성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 학습목표	· 학습 목표 제시	· 학습 목표 제창			
활동1	· 향찰의 기본적인 표기 방법	· 모듬을 만들기 · 한자의 음과 훈 설명한다. · 향찰의 기본적인 표기 방법을 설명한다.	· 모듬 만들기 · 한자의 음과 훈에 대해 이해한다. · 향찰의 기본적인 표기 방법에 대해 이해하고 필기한다.	강의법	PPT 또는 칠판, 한자사전	40분
활동2	· 향찰표기를 이용한 단어	· 한자로 된 단어 제시 후 학습자들에게 뜻을 질문한다. · 모듬별로 향찰표기를 이용한 단어출제 후 퀴즈로 이용한다.	· 단어의 뜻을 모듬별로 토의한 뒤 발표한다. · 모듬별로 출제한 문제의 답을 찾은 뒤 발표한다.	시범식, 협동학습, 문답법		
활동3	· 향찰표기를 이용한 단문장	· 한자로 된 문장 제시 후 학습자들에게 뜻을 질문한다.	· 문장의 뜻을 모듬별로 토의한 뒤 대답한다.	문답법		
활동4	· 서동요 읽기	· 서동요의 원문을 제시한 후 모듬별로 1연씩 정하여 해석하게 한 뒤 모듬별로 발표시킨다. ·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준다.	· 모듬별로 토의 후 발표하며, 다른 모듬의 발표에 경청한다. · 경청하며 필요에 따라 필기한다.	협동학습, 문답법		

활동5	· 서동요의 어구설명	· 해석의 어려움이 따르는 부분은 교사가 따로 설명한다.	· 경청하며 필요에 따라 필기한다.	강의법	· 한자사전	
정리	· 본시 학습 내용의 정리 · 과제제출	· 향찰 표기의 핵심 부분을 정리해 준다. · 향가작품 중 선호하는 것을 골라 음차와 훈차를 구별하고 해독해오기	· 경청하며, 필요에 따라 필기한다. · 과제를 받아 적는다.	강의법	PPT 또는 칠판	5분

<표 3. 「서동요」를 이용한 향찰표기법의 수업 지도안>

### (1) 도입

먼저 교사와 학습자 상호 간의 인사를 통해 수업의 시작을 알린 뒤, 동기 유발을 위해 교사는 아래의 화면을 학습자에게 제시한다.

○ 신문검색  
● 기사검색  
[ ] 찾기

PDF 뉴스 보기

호외고시공고

시정 뉴스  
시정웹뉴스

참여마당  
사이버소비자센터  
시민제안  
자원봉사센터

관련사이트  
광주시청  
광주도시공사  
광주관광

2015광주U대회 유치 '경신호'

대한민국 정부도 전폭 지원

Full support from the Central Government 'Good signal' for Gwangju's hosting the 2015 Summer...



뜨거운 열정으로 실사단을 감동시켜라

'빛고을' 향한 광주의 도전이 시작됐다. 도전은 항상 아름답다. 숭고하기까지 하다. 도전이 없다면 세상의 발전...

※ 시의회 소식

- 시의회 경제살리기 추경 2천350억 원 확정
- 의결 안건 주요 내용

※ 애향의 향기

- 오크툼의 비밀
- 2009 광주정음성음악제 준비 본격화

※ 시민광장

- 시장에게 바란다
- 메말미요

※ Book & Movie

'88만원 세대', 끝없이 하강하는 무기력한 청년들

켄 로치 감독의 <자유로운 세계> 켄 로치 감독이 전하는 뜨거운 삶의 노래 '88만원세대'는 꾸준히 말할 수 없는 비정규직이며 평균임금이 88만원...

미 리이 께에 우리가 외치는 게사미 이

광주(04/10) KWBK

오늘	내일
27°C	10~27

630+ NATE SHOW

행정소식

- 상수도본부 기능대회 '우승'
- 정의화 한나라당 의원
- 시 소방본부 조태길 소방장 등
- 행정혁신인상 정경록 씨
- 상하수도 요금 체납
- 수완 하남2지구 버스 노선 변경
- 도로변 음식을 쓰레기통
- "불법광고물 안돼"
- 독감 예방접종 하셔

<동기유발을 위한 자료 1.>

교사는 위의 자료를 보이며 학습자들에게 '빛고을'이라는 단어에 주목하게 한다. '빛고을' 뒤에 '광주(光州)'가 붙은 이유가 무엇인지, '빛고을'과 '광주'는 무슨 관계인지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유도한다. 때에 따라서 '빛고을'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바꾸면 어떠한 한자어가 만들어질지 생각해 보게 하는 등의 유도를 통해 교사는 한자의 뜻을 빌어 지명을 표기했다는 결론에 귀착할 수 있도록 학습자들을 이끌 수 있다. 이 외에도, '벌말→평촌(平村)', '삼개→마포(麻浦)', '한밭→대전(大田)', '애오개→아현(兒峴)', '봄내→춘천(春川)', '아우내→병천(並川)' 등 학습자에게 익숙한 지명의 예를 들어 우리말을 한자로 표기하던 방식이 현재에도 남아있음에 대해 주지시킬 수 있다. 이는 본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학습자에게 친숙한 지명의 예를 통해서 우리말을 한자로 표기하는 방법도 있음을 알게 하며, 더불어 앞으로의 수업이 이와 연관될 것임을 미리 예감하게 하는 효과를 줄 것이다.

다음으로 PPT를 통해 제시된 학습목표를 다 같이 읽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학습이 이루어진 후 기대하는 학습자들의 행동 변화로 정의되는 학습목표는 실제 수업의 현장에서 수업의 방향을 제시해줄 뿐만 아니라 교수·학습을 위한 모든 행동의 가치와 의의를 평가해주는 준거의 역할을 한다. 즉, 매 시간의 학습목표는 그 시간에 다루는 학습의 내용이나 교수 활동의 의의를 통일적으로 제어하며 방향을 제시해 주는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학습목표 인식은 반드시 필요하다.

## (2) 전개

활동 1의 부분에서는 먼저 한자는 음과 훈(혹은 뜻)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언급한 뒤 향찰 표기는 기본적으로 한자의 음 또는 뜻을 활용한 표기 방법임을 설명한다. 이 때 교사는 학습자의 이름 중 한글 이름을 가진 학생이 있다면 그 이름을 판서하고 이를 한자로 표기하면 어떻게 쓸 수 있을지 생각해보게 하며 시범을 보인다. 예를 들어 한글 이름 중 ‘김사랑’과 ‘오봄’을 제시하고 한자 표기로 변환하는 시범을 보이는 것이다. 이때 교사는 한자에 대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김사랑’은 ‘金愛’이나 ‘金事郎’ 정도로, ‘오봄’은 ‘吳春’이나 ‘五春’ 정도의 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활동은 먼저 같은 학급의 학습자의 익숙한 이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에 학습자에게 친근감을 더해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향찰 표기는 이처럼 한자가 가지고 있는 뜻글자와 음글자의 조합으로 표기가 가능함을 교수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학습자들에게 익숙한 연예인의 이름이나 선생님의 이름, 드라마나 영화의 제목 등을 향찰표기로 만들어 칠판에 적은 뒤 학습자들

로 하여금 모듬 토의 과정을 거쳐 맞춰보게 한다. 혹은 이와는 반대로 한글로 문제에 해당하는 단어를 판서하고 향찰표기로 만들어 보는 활동을 할 수도 있다. 이때는 필요한 한자의 음과 뜻을 학습자들이 직접 찾아가며 단어의 뜻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사는 한자의 음과 뜻을 미리 알려주지 말 것이며, 학습자 스스로 한자 사전을 가지고 찾도록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우리의 글이 창제되기 이전에 다른 나라의 문자를 가지고 우리말을 표기하던 방식이 사용하기에 번거롭다는 것, 더불어 우리글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보다 경제적이고 효과적이란 것을 느낄 수 것이다.

활동 2의 예를 들어보자. 교사는 ‘金天(김하늘)’, ‘張國(장나라)’ 등과 같은 단어를 제시한 뒤<sup>12)</sup> 모듬별로 토의를 통해 어떤 글자는 음으로 읽고, 또 어떤 글자는 훈으로 읽어야 하는지를 정하게 한다. 혹은 이와는 반대로 활동 1에서 교사가 시범을 보였던 것에 이어 학습자에게 ‘김하늘’, ‘장나라’라는 연예인의 이름을 한자로 표기하면 어떻게 될지 써보게 한다. 학습자들에게 어려운 음차와 훈차라는 개념을 자신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의 이름 또는 익숙한 영화 제목을 이용하면 보다 더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향찰 표기들은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한 것일 뿐, 그 자체가 향찰 표기의 원리대로 창작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위와 같은 한자로 된 단어를 제시할 때 향찰 표기에는 어떤 숨겨진 원리가 있음을 인식시켜 궁금증을 유발시킬 필요가 있다. 교사는 학습자들이 한자의 음과 훈을 이용한 차차 표기를 이해했다고 판단된다면, 한자로 쓰인 단어를 우리 식으로 해석하여 읽는 것에서 더 나아가 모듬 스스로 이와 같은 방식의 단어를 만들어 다른 모듬으로 하여금 정답을 맞춰보게 하는 식으로 수업을 구성

---

12) 이때는 한자만을 제시하고, 이 단어가 여자 연예인의 이름이라고 힌트를 주어 해당 단어의 해독을 도울 수 있다.

해도 좋을 것이다.

활동 3은 향찰 표기가 한자의 음과 훈을 활용한다는 사실을 주지시켰던 활동 2를 바탕으로 향찰 표기의 원리에 대해 이해해보는 활동이다. 향찰표기는 아무렇게나 음차 또는 훈차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부분은 훈(뜻)을, 조사와 같은 문법적 요소는 주로 음을 빌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활동 3에서는 이처럼 향찰 표기가 실질적인 의미와 문법적인 의미에 따라 훈차와 음차가 달라진다는 것을 학습자들 스스로 찾아내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활동 3에서 교사는 미리 준비한 향찰로 표기된 문장들을 제시한다. 이때는 긴 문장보다는 짧은 문장 또는 그 구성성분이 비교적 단순하다고 판단되는 문장 및 당시에 유행하는 유행어 등을 먼저 제시함으로써 학습자로 하여금 부담감을 덜어주어야 한다. 예를 들면 ‘水乙飲多(물을 마시다)’, ‘石乙投多(돌을 던지다)’, ‘花乙見多(꽃을 보다)’, ‘家厓去多(집에 가다)’, ‘歌乙唱多(노래를 부르다)’, ‘父隱母乙愛爲隱多(아버지는 어머니를 사랑한다)’, ‘我隱汝矣友而多(나는 너의 친구이다)’, ‘我隱汝乙愛爲隱多(나는 너를 사랑한다)’, ‘父爲古 我爲古 造隱 花田厓(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母加 島陰厓(엄마가 섬그늘에)’ 등과 같은 문장을 제시하고 모둠별로 탐구하게 한다. 이때 학습자들은 나름대로 가설을 설정하고, 주어진 자료를 분석하여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하여 모둠별로 결론을 도출한다. 교사는 일부 모둠을 정하여 문장을 해석시키고, 각 한자마다 훈차로 쓰였는지, 음차로 쓰였는지에 대해 발표를 하게 한다. 이때 지정한 모둠과 다른 해석을 한 조가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 있을 경우에는 이 또한 발표를 통해 알아 본 다음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정정을 해주어야 한다. 더불어 향찰이 한자의 음과 훈을 이용하여 한문의 어순이 아닌 우리말의 어순대로 표기한 것임을 전달해야 한다.

다음으로 교사는 「서동요」의 원문<sup>13)</sup>을 제시한 뒤 모듈별로 1연씩 맡아서 작품을 해독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먼저 교사는 1연, ‘善化公主 主隱’을 통해 학습자들에게 예를 들어 줄 필요가 있다. 즉, ‘善化公主’는 고유명사로서 음독을 해야 하며, 다음으로 나오는 ‘主’는 앞의 ‘主’와는 달리 ‘님’으로 훈독하며, ‘隱’은 음독해야 한다는 것을 교사가 먼저 학습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다음에 이어지는 2연~3연을 해독함에 있어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처음부터 작품을 대면하여 기계적인 분석과 해석을 시도하는 것보다는 앞의 두 활동을 거쳐 자연스럽게 향찰 표기에 대해 이해하고 난 뒤 작품을 살피며 향찰표기에 대해 심화하는 것이 교사나 학습자에게 모두 효율적일 것이다. 모듈별로 서동요의 원문을 보고 토의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는 국어 교과서에 실려 있는 해석을 참고하여 향찰 표기의 원리에 대해 스스로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토론을 마친 뒤 학습자들은 모듈별로 결과를 발표하는데 이때 교사는 허용적이고 자유로운 탐구의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의도하는 결론을 얻으려고만 하기보다는 오히려 학습자들의 탐구 노력에 대해 인정해주고 칭찬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사는 발표 모듈과는 다른 관점으로 해석을 한 모듈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원전의 의미를 크게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적으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수 있음을 언급해 주어야 한다. 향가 작품이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는 것과 같이 학습자들도

13) 여기에서는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린 서동요의 본문과 해석본과 김완진의 해독본을 함께 학습자들에게 제시하고자 한다.

원문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김완진
善化公主主隱 他密只嫁良置古 薯童房乙 夜矣卵乙抱遣去如	선화 공주님은 남 몰래 결혼하고 맛등서방을 밤에 몰래 안고 가다.	선화공주님은 남 몰래 짝 맞추어 두고 薯童방을 밤에 알을 안고 간다.

모둠별로 다르게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 옳고 그름을 지적 「서동요」하기 보다는 수용하는 태도로 모듬의 발표를 이끌어야 한다.

학습자들은 한자의 음과 훈만을 가지고 「서동요」의 전문을 완벽히 해독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교사는 학습자가 교과서의 해석과 김완진의 해독을 참고하여 「서동요」의 향찰 표기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부분은 없었는지 확인하여 공통분모에 해당하는 것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교수하여야 한다. 즉, 기본적으로 원문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한자가 음독으로 읽히는지, 훈독으로 읽히는지, 실사인지 허사인지에 대한 판별을 선행해야하며<sup>14)</sup>, 2연의 ‘密只’, ‘嫁良’, 3연의 ‘薯童房’, 4연의 ‘卵乙’ 등과 같이 해석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따른다고 생각되는 어구<sup>15)</sup>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부분은 학습자들이 주체가 되어 행하는 발견학습 또는 서로의 의견 조율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얻는 팀별 학습을 통해 알아내기에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기에, 교사의 설명식 수업이 필요한 것이다.

### (3) 정리

이 활동은 수업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향찰의 표기법에 대해 학습자들에게 간단한 질문을 하고, 대답을 얻는 것을 통해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14) 조지은, 『서동요의 교육방법 연구』, 연세대학교, 2004. p. 44~45

善(음독) 化(음독) 公(음독) 主(음독) 主(훈독) 隱(음독)  
他(훈독) 密(훈독) 只(음독) 嫁(훈독) 良(음독) 置(훈독) 古(음독)  
薯(훈독) 童(음독) 房(음독) 乙(음독)

夜(훈독) 矣(음독) 卵(음독) 乙(음독) 抱(훈독) 遣(음독) 去(훈독) 如(훈독)

15) 김완진, 『향가와 고려가요』,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p. 94~96

密只- 그스기>은밀히, 몰래  
嫁良- 어러  
卵乙- 알홀

질문 1. 훈민정음이 창제되기 전에 우리말을 표기하기 위한 수단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질문 2. 향찰은 한자의 ( )과 ( )을 빌어 우리말을 표기하는 수단이었다. ( ) 안에 들어가는 1음절의 단어는 무엇입니까?

질문 3. 향찰은 한자의 음을 빌릴 경우와 한자의 훈을 빌릴 경우가 다른데, 각각의 경우를 서동요의 예를 들어 설명해 보세요.

이와 같은 질문을 통해 향찰 표기법에 대한 정리를 마친 후 교사는 현존하는 향가 작품 중 원하는 작품을 골라서 각 한자가 음차인지, 훈차인지 구분하고, 스스로 해독을 해보는 과제를 제출함으로써 수업을 마무리한다.

## 2) 「청산별곡」을 이용한 중세국어 문법의 교수-학습 지도안

「청산별곡」은 8연의 노랫말이 구전되어 오다 한글 창제 이후 『악장가사』, 『시용향악보』, 『악학편고』에 기록되었을 뿐, 그에 관한 구체적인 기록이 전하고 있지 않아, 학계에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현전하는 고려가요 중 가장 서정성이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되어 교육과정이 바뀌어도 국어 교과서에 계속 수록되어 왔었다. 7차 국어 교과서에서 「청산별곡」은 10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상)권의 6단원 ‘노래의 아름다움을 중심으로’에 실려 있고, 문학 작품으로서 「청산별곡」의 내용을 가르치기보다는 이를 통해 문학의 아름다움을 이루는 요소를 찾아 이해하고 언어 활동영역을 향상시키는 것이 주된 목표로 제시되었다.

이처럼 국어 교과서가 「청산별곡」을 통해 ‘문학의 아름다움’을 유도하는 것과는 달리 본고에서는 10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산별곡」을

통해 중세국어 문법과 「청산별곡」의 올바른 해석을 교수-학습의 목표로 삼고 2차시의 교수-학습 지도안을 마련해 보고자한다. 이때는 학습자 주도의 발견식 학습보다는 교사의 강의식 수업과 문답법에 의존하여 수업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본다. 때에 따라 학습자들로 하여금 모듈 토의 과정을 통해 여러 예를 관찰하여 보편적인 결론을 얻을 수 있는 수업 방식을 사용할 것이다.

「청산별곡」을 이용한 중세국어 문법의 수업 지도안<sup>16)</sup>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교수-학습 내용		「청산별곡」을 통한 중세국어 문법		차시	1/1	
학습 목표	1. 청산별곡에 드러난 문법현상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청산별곡을 국어학적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과정	중심내용	교수-학습활동		학습 형태	자료 매체	시간
		교사	학습자			
도입	· 인사	· 인사	· 인사	문답식	교과서, PPT	3분
	· 동기유발	· 국어(상)교과서의 「청산별곡」을 읽고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지 자유롭게 이야기하게 한다.	· 「청산별곡」의 원문을 보며, 자유롭게 손을 들고 해석이 난해한 부분을 말한다.			
	· 학습목표	· 학습목표의 제시	· 학습목표 제창			
전개	· 활동 1 - 「청산별곡」을 통한 중세국어 문법 1 (처격조사)	· 모듈을 만든다. · ‘청산애, 바르래, 값대예, 도기’에 쓰인 조사가 현대국어의 어떤 조사와 연결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고 발표를 시킨다.	· 모듈을 만든다. · 문맥을 통해 ‘청산애, 바르래, 값대예, 도기’에 쓰인 조사에 대해 생각한 뒤 모듈별로 발표한 다.	모듈 학습 / 강의법	교과서, 칠판	40분

16) 여기에서는 1차시 수업으로 구성하였으나, 실제 수업에서 시간이 더 걸릴 경우 2차시 수업으로 재구성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세국어 처격조사와 특이처격의 형태에 대해 설명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세국어 처격조사와 특이처격의 형태에 대해 이해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동 2</li> <li>- 「청산별곡」을 통한 중세국어 문법 2 (명령형 어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연의 ‘우리라’의 해석이 감탄형인지 명령형인지 생각해 보게 한다.</li> <li>· 형태소 분석과 예를 통해 ‘어라/아라’가 명령형임을 확인시킨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연의 ‘우리라’의 해석이 감탄형인지 명령형인지 생각한다.</li> <li>· ‘어라/아라’가 명령형임을 확인한다.</li> </ul>	모듬 학습 / 강의 법	교과서, 칠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동 3</li> <li>- 「청산별곡」을 통한 중세국어 문법 3 (의문형 어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연 ‘본다’를 현대국어로 바꾸면 무엇이 될지 생각해 보게 한다.</li> <li>· 형태소 분석을 통해 ‘본다’가 의문형이며 과거형임을 설명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연 ‘본다’를 현대국어로 바꾸면 무엇이 될지 생각해 본다.</li> <li>· ‘본다’가 의문형이며 과거형임을 이해한다.</li> </ul>	모듬 학습 / 강의 법	교과서, 칠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동 4</li> <li>- 「청산별곡」을 통한 중세국어 문법 4 (ㅎ중성체언, 의문보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머리+가락→머리카락’, ‘암+것→암컷’, ‘살+고기→살코기’가 되는 되는 이유를 생각해 보게 한다.</li> <li>· 중세국어의 체언 중 ㅎ중성체언에 대해 설명한다.</li> <li>· 5연의 ‘돌코’를 현대국어의 입장에서 해석해 보게 한다.</li> <li>· 의문보조사‘-가/-고’에 대해 설명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머리+가락→머리카락’, ‘암+것→암컷’, ‘살+고기→살코기’가 되는 되는 이유를 생각해 본다.</li> <li>· 중세국어의 ㅎ중성체언에 대해 이해한다.</li> <li>· ‘돌코’를 현대국어의 입장에서 다양하게 해석한다.</li> <li>· 의문보조사‘-가/-고’에 대해 이해한다.</li> </ul>	모듬 학습 / 강의 법	교과서, 칠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동 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높임법의 종류에 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체, 객체, 상대높</li> </ul>	모듬	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산별곡」을 통한 중세국어 문법 5 (객체높임의 선어말어미-습)</li> </ul>	<p>해 묻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객체높임법과 실현 상황에 대해 묻는다.</li> <li>• 중세국어의 객체높임의 선어말어미 ‘-습-’에 대해 설명한다.</li> <li>• 8연 ‘잡스와니’를 해석하게 한다.</li> </ul>	<p>임법이 있음을 대답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것임을 대답한다.</li> <li>• 중세국어의 객체높임의 선어말어미 ‘-습-’에 대해 이해한다.</li> <li>• 8연 ‘잡스와니’를 해석한다.</li> </ul>	학습 / 강의 법	과서, 칠판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시 학습 내용의 정리</li> <li>• 과제제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동 1~5까지의 핵심 부분을 정리해 준다.</li> <li>• 본 수업에서 학습한 중세국어 문법이 드러난 자료를 찾고 해석해 오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청하며, 필요에 따라 필기한다.</li> <li>• 과제를 받아 적는다.</li> </ul>			5분

<표 4. 「청산별곡」을 이용한 중세국어 문법의 수업 지도안>

(1) 도입

교사는 학습자와 상호 간의 인사를 통해 수업의 시작을 알린 뒤 국어 교과서 (상)권의 「청산별곡」을 제시하고, 지난 학년에서 배웠던 기억을 돌이켜 1연부터 8연에 이르기까지 어구의 해석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은 없었는지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한다. 현행 7차 교육과정의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청산별곡」은 해석의 다양성이 제기되는 어구에 있어서 본문 옆 날개부분을 할애하여 어구 풀이를 하고 있다<sup>17)</sup>. 하지만

여기에서는 7차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방법’에 ‘훈고주석에 얽매이지 않도록’이라는 조항의 영향으로 인해 국어사 지식에 대한 언급 없이 해당 어구와 현대어 풀이를 1차원적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때문에 학습자는 중세국어로 쓰인 어구가 어떠한 원리로 풀이되었는가에 대해서는 학습할 수 없기에 해석의 명확성이 보장되지 않는 「청산별곡」에 대해 더더욱 난해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학습자는 자신이 궁금하게 여기는 것들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이고 더불어 학습에 흥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PPT를 통해 제시된 학습목표를 다 같이 읽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청산별곡」을 이용한 중세국어 문법<sup>17)</sup>의 학습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청산별곡」에 드러난 문법 현상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17) 교육인적자원부, 『국어』(상), p. 232~233.

- 살어리랏다: 살리라. 살고 싶구나  
 다른 해석: ‘~리랏다’를 과거 가정법으로 보아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로 해석하기도 한다. 이 경우 ‘과거에 내가 좀더 현명했다더라면 청산에 살았을 것을’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을 아쉬워 한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 우러라: 울어라.  
 다른 해석: 감탄법으로 보아 ‘우느구나’로 풀이하기도 하고, ‘노래하다’의 의미로 보아 ‘노래 불러라 새여, 너 보다 근심이 많은 나도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로 풀이하기도 한다.
- 가던 새: 날아가던 새  
 다른 해석: ‘가던’은 ‘(발을) 갈던’에서 ㄱ이 탈락된 형태이고, ‘새’는 ‘사래’에서 ‘ㄱ’이 탈락되고 축약된 형태로 보는 견해가 있다. 따라서 3연을 ‘갈던 발을 본다. 녹슨 연장을 가지고 갈던 발을 본다.’로 풀이하어, 경작하던 발을 빼앗기고 산속에 들어와 옛 생활을 회상하는 내용으로 파악하기도 한다.
- 잉 무든 장글란: 다음과 같은 다양한 해석이 있다.
  - ① 이끼 묻은 쟁기일랑.
  - ② 날이 무든 병기(兵器)랑.
  - ③ 이끼 묻은 은장도(銀粧刀)랑.
- 예정지: 아직 정확한 뜻이 밝혀지지 않았으나, ‘외따로 떨어져 있는 부엌’이라고도 함.
- 사스미 깎대에 올라서 희금(奚琴)을 허거를 드로라: 사슴이 장대에 올라서 해금을 켜는 것을 들었다.  
 다른 해석: 사슴이 장대 위에 오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다름과 같이 살피려는 노력이 있다. ① ‘사름’의 오기(誤記). ② 사슴으로 분장한 광대가 산대잡희(山臺雜戲)의 놀이를 하는 것을 뜻함.

2. 「청산별곡」을 국어학적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 (2) 전개

전개에서는 앞서 도입의 부분에서 도출된 해석상의 난해함을 불러일으키는 어구에 대해 학습자와 교사가 함께 국어사적 지식을 통해 해석해보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이 수업은 중세국어의 문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앞서도 언급했던 바와 같이 학습자 중심의 탐구수업보다는 교사의 설명식 수업이 보다 많이 이용될 것이다.

각 활동의 상세한 설명을 하기에 앞서 『국어』(상)에 수록된 「청산별곡」의 전문<sup>18)</sup>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청산별곡(靑山別曲)

지은이 모름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靑山)애 살어리랏다.  
멀위랑 드래랑 먹고 청산(靑山)애 살어리랏다.  
얄리얄리 얄라성 얄라리 얄라

우러라 우러라 새여 자고 니러 우러라 새여.  
널라와 시름 한 나와 자고 니러 우니로라.  
얄리얄리 얄라성 얄라리 얄라

가던 새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18) 교육인적자원부, 『국어』(상), 2002. p.232~233.

잉 무든 장글란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이링공 더링공 햏야 나즈란 디내와손더.

오리도 가리도 업슨 바므란 쏘 엇디 호리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어디다 더디던 돌코 누리라 마치던 돌코.

피리도 괴리도 업시 마자셔 우니로라.

알리 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가다가 가다가 드러라 예정지 가다가 드로라.

사스미 궂대에 올라셔 히금(奚琴)을 햏겨를 드로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알라

가다니 톱브른 도괴 설진 강수를 비조라.

조롱곳 누로기 밭와 잠스와니 내 엇디 햏리잇고.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악장가사(樂章歌詞)’

먼저 활동 1은 중세국어의 처격조사에 대해 알아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세국어의 처격조사의 형태로는 ‘-애/에/예, -이/의’가 있다. ‘-애’와 ‘-에’는 체언 말음과는 관계없이 체언의 모음이 양성모음이면 ‘-애’, 음성모음이면 ‘-에’가 쓰인다. ‘-예’는 체언이 ‘이’나 ‘ㅣ’모음으로 끝날 때

사용된다. ‘-의/의’는 특이처격으로 신체, 방위, 자리, 시간, 거주, 가구, 숫자를 뜻하는 체언과만 통합된다. ‘-의’는 체언의 모음이 양성모음일 때, ‘-의’는 음성모음일 때 쓰인다. 「청산별곡」에 나타나는 처격조사와 결합한 시어로는 1연의 ‘청산애’, 6연의 ‘바르래’, 8연의 ‘깊대예’, 8연의 ‘도괴’가 있다. 교사는 학습자에게 앞의 시어를 현대어로 풀이하였을 때 체언에 결합한 조사가 현대국어의 어떤 조사와 비슷한지 생각해보고 모둠별로 자유롭게 발표하게 한다. 학습자들은 모둠별 토의 과정을 거쳐 위 시어에서 쓰인 조사가 부사격 조사 중 처소 부사격 조사에 해당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교사는 현대국어의 처소 부사격 조사가 중세국어에서는 처격조사에 해당하며, 시어를 바탕으로 처격조사의 여러 형태가 있음을 설명한다. 활동 1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교사는 처격 조사와 결합한 시를 분석하여 제시하고 처격조사의 여러 형태에 대해 정리해 준다.

활동 2는 2연의 ‘우리라’를 현대어로 바꾸어 보았을 때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는 활동이다. 국어(상) 교과서에서는 ‘우리라’를 ‘올어라’의 명령형과 ‘우는구나’의 감탄형으로 풀이를 해 놓고 있다. 즉 ‘우리라’를 분석하면 동사어간인 ‘올’과 명령형 어미 혹은 감탄형 어미 ‘어라’로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라’에 대하여 ‘우는구나’ 정도의 감탄형으로 해석하는 일은 국어학의 관점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를 명령형이라고 확정 지어 말하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중세어의 ‘-애라/에라’의 변화형인 현대어의 감탄어미 ‘-어라/아라’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이 용언의 어간과 통합할 경우에는 상태성이 강한 동사나 심리동사와 주로 통합할 뿐, ‘올-’과 같은 동작동사와 통합하는 일은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는 동사의 어간 ‘올-’에 ‘-어라’가 결합한 명령형으로 보는 것이 감탄형으로 여기는 것보다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는 “(그래) 올어라. 올

어라”정도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sup>19)</sup> 따라서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우러라’가 명령형인지 감탄형인지 생각해보게 하며, 이때 교사는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우러라’에 대한 형태소 분석을 학습자에게 제시한다. 그 뒤 학습자들로 하여금 ‘-어라/아라’를 동사와 형용사에 결합하여 감탄형으로 사용되는 문장을 만들어 봄으로써, 학습자는 ‘우러라’가 감탄형이 아닌 명령형 문장에 가까운 것임을 밝혀낼 수 있다.

활동 3은 「청산별곡」 3연의 ‘본다’에 대한 국어학적 해석을 시도하는 활동이다. 이 ‘본다’에 대해서는 “보았느냐”의 해석과 “본다”의 두 해석이 여전히 대립하고 있다. 전자의 해석은 ‘본다’의 ‘-는다’를 중세어 이후 근대어까지 발견되는 2인칭 의문형 어미 ‘-는다’로 파악하는 것이고, 후자의 해석은 현재 직설 평서형(‘-는다’가 ‘-는다’로 변화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다.<sup>20)</sup> 이는 현대국어의 간접으로 인해 ‘보-’의 현재형으로 파악하기 쉬우나 국어사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보-’의 현재형은 중세국어에서는 ‘보는다’로 나타나기 때문에 ‘본다’는 동사어간 ‘보-’에 2인칭 의문형 어미 ‘-는다’가 결합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교수해야 할 것은 2인칭 의문형 어미 ‘본다’가 ‘보는다’와 비교하여 ‘보느냐?’가 아닌 ‘보았느냐?’, 즉 현재형이 아닌 과거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는 학습자에게 먼저 3연의 ‘본다’를 현대국어로 바꾸면 어떤 해석이 가능할지 생각해 보게 한 뒤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다음 ‘본다’의 형태소를 분석하여 이것이 과거형이며 또한 2인칭 의문형 어미가 결합하여 “보았느냐?”가 되는 이유를 설명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단지 ‘본다’가 ‘보았느냐?’로 해석된다는 일차원적인 설명에서 벗어나 현재시제와 관련된 중세국어의 선어말어미 ‘-느-’의 존재와 2인칭 의문형 어미 ‘-는다’에 대해 알게 될 것이다. 더불어 교과서에 나타나

19) 장윤희, 『국어교육』 제 108호, 「국어사 지식과 고전문학 교육의 상관성」, p.380.

20) 장윤희, 앞의 논문, p.383.

는 여러 국어사적인 지식과 관련된 자료<sup>21)</sup>에 나타난 2인칭 의문형 어미도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활동 4는 5연의 ‘돌코’를 통해 중세국어의 ㅎ중성체언과 의문의 보조사에 대해 학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다. 중세국어의 체언 가운데 ‘ㅎ’말음을 가진 것, 즉 ‘ㅎ’중성체언은 ‘ㅎ’말음체언 또는 ‘ㅎ’곡용체언이라고도 부르는데 청산별곡의 5연에 나타나는 ‘돌’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 ‘돌코’는 명사어간인 ‘돌ㅎ’에 의문보조사 ‘-고’가 결합된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여기에서 쓰인 ‘-코’는 선행하는 명사 ‘돌ㅎ’의 ‘ㅎ’의 영향으로 ‘-코’로 실현된 것이다. 여기서 ‘-고’는 중세국어의 의문문이 명사에 의문보조사가 통합하여 이루어지기도 함을 보여주는 예이다. 이때 의문보조사는 의문사가 있어 상대방에게 설명을 요구하는 설명의문문에는 ‘-고’가 쓰이고, 의문사가 없이 가부(可否)의 판단만을 묻는 판정의문문에는 ‘-가’가 쓰인다.

위와 같은 국어사적 지식을 학습하기에 앞서 교사는 먼저 ‘살+고기’가 ‘살고기’가 아닌 ‘살코기’로, ‘머리+가락’이 ‘머리카락’으로, ‘암+컷’이 ‘암컷’으로 실현되는 이유가 무엇일지 학습자들로 하여금 생각해 보게 한다. 이는 제시한 합성어 중 선행하는 단어가 ‘ㅎ’말음을 가진 체언임을 인지하게 하기 위한 활동이다. 다음으로 교사는 중세국어에 ㅎ중성 체언에 대해 설명하고 ‘돌코’가 ‘돌ㅎ+고’임을 밝힌 뒤 학습자에게 이를 현대국어의 입장에서 해석해 보게 한다. 이미 학습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학습자는 쉽게 ‘돌코’가 ‘돌인가?’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 교사는 현대국어와는 달리, 즉 현대국어에서는 체언에 바로 의문의 보조사가 결합하여 의문문을 만들 수 없는 것과는 달리 중세국어에서는

---

21) ·궁왕(弓王) 대궐(大闕) 터희 오작(烏鵲)이 지지괴니 천고흥망(千古興亡)을 아는다 물으는다  
<관동별곡, 하228>  
·풍운(風雲)을 언제 어더 삼일우(三日雨)를 디런는다 <관동별곡, 하233>

이것이 가능했으며, 더불어 의문사의 존재 여부에 따라 의문의 보조사가 그 양상을 달리하여 결합하는 것을 설명해 준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과서에 나타나는 여러 국어사적 지식과 관련된 자료<sup>22)</sup>에 나타난 ㅎ중성체언과 의문의 보조사가 결합한 의문문에 대해서 능히 해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활동 5는 「청산별곡」의 8연에 나타나는 ‘잡스와니’를 통해 중세국어의 객체높임의 선어말어미 ‘-습-’에 대해 학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습-’은 선어말어미로 환경에 따라 다양한 이형태가 존재한다. 어간 발음이 모음이거나 ‘ㄴ, ㄹ, ㅁ’이면 ‘-습-’, 어간 발음이 ‘ㄷ, ㅈ, ㅊ’이면 ‘-줍-’, 이외의 경우에는 ‘습’으로 실현된다. 또한, ‘-습-, -습-, -줍-’은 모음어미나 매개모음을 가지는 어미 앞에서는 발음 ‘ㅂ’이 ‘ㅍ’으로 되어 각각 ‘-습-, -습-, -줍-’으로 교체된다. ‘잡스와니’는 동사 어간 ‘잡-’과 객체높임의 선어말어미 ‘-습-’, 확인법의 선어말어미 ‘-아-’, 연결어미 ‘-니’로 분석된다.

선어말어미 ‘-습-’에 대해 학습하기에 앞서 교사는 학습자에게 현대국어의 높임법의 종류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 뒤, 객체높임법이 실현되는 상황에 대해 묻는다. 학습자들은 주체, 객체, 상대높임법에 대해 대답하며 높임법에 대해 개략적인 정보를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때 학습자의 대답에 따라 교사가 각 높임법들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수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도 있다. 이어서 학습자는 객체높임이 실현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여쭙다’, ‘드리다’, ‘모시다’, ‘뵈다’ 등의 어휘의 사용을 통해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인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교사는 현대국어와는 다르게 쓰였던 중세국어의 객체높임의 선어말

22) · ㅎ중성체언의 예  
 최금이 돌호 가지고 <동국신속삼강행실도, 상 322>  
 화천(花川) 시내 길히 <관동별곡, 하228>

어미 ‘-습-’과 다양한 이형태들에 대해 설명한 뒤, 모듬별로 「청산별곡」 8연의 ‘잡스와니’를 해석하게 한다. 여기에서는 ‘-습-’이 어떤 이형태로 실현되었는지를 목적으로 한 해석이기 때문에 선어말어미 ‘-아-’나 연결어미 ‘-니’에 대한 분석은 요구하지 않는다. 모듬별로 해석을 실시함에 앞서 교사는 ‘빙’이 15세기 중반부터 반모음 ‘ㄱ, ㄷ’로 바뀌었음<sup>23)</sup>을 교수할 필요가 있다.

### (3) 정리

이 활동은 수업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지금까지 「청산별곡」의 여러 시어를 통해 학습한 중세국어 문법에 대해 학습자들에게 다시 한 번 주지시켜 주며 수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중세국어 처격조사의 형태, 2인칭 의문형 어미와 ㅎ중성체언, 의문보조사의 형태, 객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습’에 대해 다시 한 번 주지시켜 줌으로써 수업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교사는 과제를 물을 제시한다. 과제로는 본 수업에서 학습한 중세국어 문법이 드러난 자료를 찾고 그 부분을 해석해 오는 것으로 한다. 이때 교사는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상, 하)권을 중심으로 하거나 <관동별곡>, <노걸대언해>, <사모곡>, <동국신속삼강행실도>, <용비어천가>, <어부사시사> 등 자료의 제한 또는 구체적인 작품을 예로 들어 줌으로써 학습자가 과제를 수행함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V. 결론

---

23) 이때 ‘셔블>서울’, ‘도바>도와’와 같은 예를 들어 설명하면 학습자의 이해에 도움이 되리라 본다.

국어과 교육에서 국어사 교육은 결코 소홀이 할 수 없다. 이는 국어사 교육 내용이 국어과 교육 과정에 나타나 있는 ‘국어 사용 능력의 신장’, ‘국어 문화에 대한 이해’, ‘국어 사용에 대한 태도’ 등의 목표 실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현장 교육을 살펴보면, 국어사 관련 내용이 국어과 교육 과정에 명시된 것과는 달리 교육 과정상의 편제에서 소홀히 취급되어 왔고, 교과서의 내용 역시 국어사와 관련된 내용이 단편적인 지식 전달 위주이거나 ‘읽기’ 영역의 한 제재로 전개되어 왔다. 이렇게 국어 교육 내에서 국어사 교육의 위상이 점차 위축된 것은 4차 교육과정 이후 국어과의 목표로 ‘언어 사용 능력의 신장’이라는 측면이 강조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이처럼 국어사 교육이 점점 그 가치와 위상을 잃어가는 현실에 문제의식을 갖고 본고에서는 국어사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보다 효과적인 국어사 교육의 교수-학습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I 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을 밝히고, 국어사 교육과 관련한 그동안의 연구를 연구 목적에 따라 국어사 교육의 의의나 필요성에 관한 연구, 국어사 교육의 내용에 관한 연구, 국어사 교육과 고전 문학 교육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국어사 교육의 효과적인 교수법에 대한 연구의 네 부류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II 장에서는 국어사 교육의 성격과 의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국어사란 한국어의 변천사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우리 민족의 역사성을 보여준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국어사에 대한 학습은 국어의 변천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학습적인 가치를 지니게 하고, 그 변천 발달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게 하며, 현

대 국어 생활의 모습을 반성하고 이를 올바르게 보전할 수 있는 국어 의식을 기르게 하며, 우리 국어로 쓰인 문학 작품을 읽고 올바르게 이해하는 길잡이가 될 수 있다는 의의를 가진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국어사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III장에서는 보다 매력적인 국어사 교육의 교수-학습 지도 방안을 위해 고전문학 작품과의 연계 교육의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교육과정의 선택과 결정을 직접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학습 자료인 고등학교 『국어(상·하)』 교과서와 18종의 『문학(상·하)』 교과서를 중심으로 국어사 내용을 교수-학습할 수 있는 고전문학 작품의 존재 여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국어사 교육에 있어서 기존의 이론적이고 집중적인 교수-학습이 아닌, 고전문학 작품을 활용하여 보다 실제적이고 매력적인 교수-학습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IV장에서는 III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국어사 영역을 교육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고전문학 작품을 선정하여 교수-학습 지도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서동요」를 이용하여 향찰표기법의 교수-학습 지도안을 마련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서동요」의 문학적 특성이나 내용을 전달하던 기존의 향가 수업과는 달리 「서동요」를 제재로 활용하여 향찰의 표기원리를 파악하고, 더불어 「서동요」를 읽고 이해하는 것에 수업의 목표를 두었다. 두 번째로 「청산별곡」을 이용하여 중세국어의 문법을 교수-학습할 수 있는 지도안을 제시하였다. 「청산별곡」은 현전하는 고려가요 중에서 서정성이 제일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되어 교육과정이 바뀌어도 국어 교과서에 계속 수록되어 왔었다. 하지만 해석의 명확성이 보장되지 않았고, 해석에 대한 교수-학습의 활동이 없었기에 여기에서는 「청산별곡」에서 교수할 수 있는 중세국어의 처격조사와 의문형 어미, 흥중성체언, 의문 보조사, 객체높임의 선어말 어미에 대해 학습하

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지금까지 국어사 교육의 현 주소를 파악하여 국어사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논하고, 국어사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고전문학 작품과의 연계교육을 꼽았다. 그러나 이러한 본고의 논의에도 몇 가지 한계가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첫째,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안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실제로 교수-학습 상황에서 실천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본고에서 제시한 두 가지 사례의 교수-학습 지도안들은 하나의 이론적인 시안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앞으로 본고에서 제시한 교수-학습 지도안들이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교수-학습 상황을 거쳐 좀 더 보완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둘째, 본고에서 다루어진 교수-학습 방안은 평가의 단계에까지 이르지 못하였다. 교육 과정 상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평가’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단지 1차시의 수업에 해당하는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했을 뿐이다.

교사의 하루 업무량 중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 영역이 차지하는 부분이 1/3에 지나지 않는다는 일선 학교의 교사들의 증언을 듣노라면, 교사가 수업을 위해 학습자의 눈높이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자료들을 꾸준히 개발하고 연구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뒤따른다면 학습자들에게 그들이 잃어버린 국어사 영역에 대한 흥미를 되찾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고를 통해 국어사 교육이 더 이상 학습자들에게 지루하고 어려운 교과가 아닌, 조금이나마 친숙하고 재미있는 교과가 되기를 기대하여 본다.

## 참고문헌

### 기본자료

- 대한교과서 주식회사(2001),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교육부.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 연구소(2002), 『고등학교 국어(상)』, 교육부 .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 연구소(2002), 『고등학교 국어(하)』, 교육부.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 연구소(2002), 『고등학교 국어(상) 교사용지도서』, 교육부.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 연구소(2002), 『고등학교 국어(하) 교사용지도서』, 교육부.
- 강황구 외(2003), 『고등학교 문학(상·하)』, 상문연구사.
- 구인환 외(2003), 『고등학교 문학(상·하)』, 교학사.
- 권영민 외(2004), 『고등학교 문학(상·하)』, 지학사.
- 김대행 외(2004), 『고등학교 문학(상·하)』, 교학사.
- 김병국 외(2005), 『고등학교 문학(상·하)』, 한국교육미디어.
- 김상태 외(2004), 『고등학교 문학(상·하)』, 도서출판 태성.
- 김윤식 외(2003), 『고등학교 문학(상·하)』, 도서출판 디딤돌.
- 김창원 외(2003), 『고등학교 문학(상·하)』, 민중서림.
- 박갑수 외(2004), 『고등학교 문학(상·하)』, 지학사.
- 박경신 외(2003), 『고등학교 문학(상·하)』, 금성출판사.
- 박호용 외(2004), 『고등학교 문학(상·하)』, 형설 출판사.
- 오세영 외(2003), 『고등학교 문학(상·하)』, 대한교과서.
- 우한용 외(2003), 『고등학교 문학(상·하)』, 두산.
- 조남현 외(2003), 『고등학교 문학(상·하)』, 중앙교육진흥연구소.
- 최 응 외(2004), 『고등학교 문학(상·하)』, 청문각.

- 한계전 외(2003), 『고등학교 문학(상·하)』, 블랙박스.  
 한철우 외(2003.), 『고등학교 문학(상·하)』, 문원각  
 홍신선 외(2003), 『고등학교 문학(상·하)』, 천재교육.

## 단행본

- 김광혜(1997), 『국어 지식 교육론』, 서울대 출판부,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김완진(2000) 『향가와 고려가요』, 서울대학교 출판부.

## 학술논문

- 권재일(1995), 「국어학적 관점에서 본 언어 지식 영역 지도 내용」, 『국어연구』 2집, 서울대 국어교육 연구소, pp.159-176.  
 김경훤(2005), 「국어사 교육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방향」, 『새국어교육』 70, 한국국어교육학회, pp.5-36.  
 김광혜(1992), 「문법과 탐구 학습」, 『선청어문』 20, 서울대 국어교육과, pp.81-101.  
 김영옥(1998), 「국어사 교육은 과연 필요한가?」, 『선청어문』 26, pp.85-110.  
 박성중(1998), 「고전 교육에 대한 국어학적 접근」, 『국어교육』 96, 한국국어교육연구회, pp.53-80.  
 박형우(2004), 「국어사 교육의 내용 선정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 114, 한국어교육학회, pp.143-166.  
 이도영(1999), 「국어과 교육 내용으로서의 국어사」, 『선청어문』 27,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pp.303-326.  
 장윤희(2002), 「국어사 지식과 고전문학 교육의 교육의 상관성」, 『국

어교육』 제 108호, pp.373-399.

\_\_\_\_\_ (2004), 「제 7차 국어과 교과서의 국어사 지식 내용 구성 연구」, 『국어연구』 32권 3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pp.445-469.

\_\_\_\_\_ (2006), 「문법 내용의 국어 교과서 구현 방안 연구」, 『국어교육』 120, 한국어교육학회, pp.325-356.

주세형(2005), 「학습자 중심의 국어사 교육 내용 설계 방향」, 『국어교육학 연구』 22, 국어교육학, pp.325-354.

#### 학위논문

기수연(2005), 『중세국어 지도 방안 연구』, 인제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유고은(2004), 『국어사 교육내용 분석 및 문제점 연구-7차 교육과정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인천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지은(2007), 『고전 이해 능력을 위한 문법 형태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제종렬(1999), 『중세국어 지도에 대한 연구-고등학교 교과서를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조지은(2004), 『서동요의 교육방법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하경철(2007), 『국어사 교육을 위한 효율적인 교수-학습 방안 연구:중·고등학교 국어사 교육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현본(2005), 『국어사의 효과적인 교수법에 대한 연구-고등학교 국어교과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ABSTRACT

## Scheme on the Education of National Language History through Classical Literature Work

Kim, Sa Rang

Majo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In the education of national language subject, education of national language history may not be neglected. This is because the education contents of national language history is the contents to be able to give help to goal realization such as extension of use ability of national language, understanding for national language culture, and attitude for national language use etc.

which are showing in the curriculum of national language subject.

Nevertheless, to examine onsite education in the meantime, contents related to national language history has been handled negligently in the composition in curriculum unlike what is specified in national language curriculum. And, as textbook contents, contents related to

national language history has been unfolded centering around fragmentary knowledge transmission or as one theme of reading domain.

In this manuscript, this researcher aimed at explaining that connection education with classical literature work is effective for more effective teaching-study of education of national language history, starting from whether education of national language history is necessary really, with critical mind for this actuality.

First, in the chapter I, this researcher clarified the goal of this study, and examined the study in the meantime which is related to the education of national language history by classifying into 4 categories such as study on the meaning or necessity of education of national language history, study on the contents of education of national language history, study on the relevancy between education of national language history and education of classical literature, and study on the effective teaching method of education of national language history.

In the chapter II, this researcher examined about the character, meaning and necessity of education of national language history. National language history shows the history nature of our race as what means the change history of Korean language. Study on national language history which is including the history of our race completely has meaning to enable us to have study value to be able to renew the recognition for the change history of national language, cultivate the ability to be able to grasp the change development, foster national language consciousness to be able to introspect the form of

modern national language life and maintain this rightly, and become the guide to understand literary work written in our national language rightly after reading it.

In the chapter III, this researcher examined about the possibility of connection education with classical literature work for the guidance scheme of more fascinating teaching-study of education of national language history by feeling keenly the necessity of education of national language history on the basis of this discussion. Here, this researcher examined about the existence of classical literature work to be able to teach-study the contents of national language history centering around 『national language(high-low)』 textbook of high school and 『literature(high-low)』 textbook of 18 kinds which are study data to embody the choice and decision of curriculum directly.

In the chapter IV, this researcher prepared the guidance plan of teachingstudy by choosing classical literature work as concrete scheme for educating the domain of national language history on the basis of the discussion of chapter III. First, this researcher prepared the guidance plan of teaching study of spelling method by using 「Seodongyo」. Here, this researcher grasped the spelling principle of by utilizing 「Seodongyo」 as theme unlike existing lessonof native songs which transmitted the literary feature of contents of 「Seodongyo」. And, this researcher aimed at reading and understanding 「Seodongyo」. Secondly, this researcher presented guidance plan to teach-study the grammar of medieval national language by using 「Chungsanbyeolgok」. 「Chungsanbyeolgok」 has

been recorded in the textbook of national language continuously, though curriculum changes. However, clearness of interpretation was not guaranteed, and there was not activity of teaching-study for interpretation. So, here, this researcher aimed at studying about postposition of medieval national language, ending of question type, final consonant substantives, question auxiliary, ending of object heightening to be able to teach in 「Chungsanbyeolgok」 .

Limits to be able to extract from the discussion of this manuscript are as follows : First, in spite of concrete teaching-study scheme, this fails to be practised in teaching-study situation really.

Second, teaching-study scheme handled in this manuscript fails to reach the stage of evaluation.